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 덕 웅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소집단 행동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한 80년대의 연구 업적과 과제들을 비판적으로 논의하였다. 한국의 현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룰 내용을 정했는데, 집단연구에서의 접근법의 최근 추세, 집단행동 연구의 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 소주제로서는 집단 사회화과정, 집단수행과 문제해결, 조직내에서의 집단생산성, 집단의사결정, 집단사고, 집단간 편견과 차별 및 소수영향을 선별적으로 가려내어 논의하였다. 또한 집단 연구의 업적을 체계화할 수 있는 틀의 모색, 집단내 과정과 집단간 과정을 다루는 이론들의 상호교류,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 집단의 역기능과 순기능 연구에서 균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에서도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집단 연구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최근 몇년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전에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집단활동들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 세력 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집단간 이해의 상충, 정치적 조직들의 이합집산, 지역간 편견과 차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갈등과 파행적 관계, 성별에 따른 전통적 고정관념과 차별을 해소하려는 활동, 여러 유형의 사회 일탈적이며 병리적인 폭력집단, 그밖에도 다양한 집단 행동 현상들을 흔히 목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현실 사회의 집단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과학자들과나 사회심리학자들은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혹은 집단 연구자들은 어떠한 연구나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가? 범위를 좁혀서 최근까지 사회심리학 영역에서의 연구만을 두고 볼때 집단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어느 학자는 사회가 평화스

럽고 조용하면 사회과학자나 사회심리학자들이 집단보다는 개인과정에 관심을 두게 되지만, 사회가 혼란스런 경우에는 집단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갈파했다(Steiner, 1974). 이 말이 진실이라면 집단 행동에 관심이 적은 사회심리학자들의 연구동향으로 미루어 볼때 현재의 한국 사회는 평화스럽고 조용함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약 한국 사회가 평화스럽고 조용하지만은 않다면 사회심리학자들이 한국사회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현실 인식이나 문제의식에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구체적 제기를 마련하려는 하나의 시도로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내 집단 연구를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최근 연구 동향과 과제들을 조망해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소집단 행동에 관한 연구경향을 짧은 지면에 논하기 어려운 몇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소집단 행동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이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 이 논문은 1988년도 대학교수 국비 해외파견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주제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둘째, 80년대 이후부터는 집단에 관한 연구들이 조직행동, 사회학 및 집단치료 등 주변 학문분야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서 현재로서는 종합학문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사회심리학 이외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업적들을 균형있게 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셋째, 최근에 자주 다루어지는 소집단 연구 주제들을 보면 연구된 정도에 있어서 서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균형있게 집단행동에 관한 지식 체계를 확립하기 어렵다. 넷째, 집단에 관한 연구 동향을 북미 대륙에 한정시켜서 논할 경우와는 달리, 유럽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고려하면 집단연구의 활성화 수준이나 주로 다루어진 주제에서 차이를 보인다. 현재에 와서는 지역에 따른 활성화 수준의 차이나 특히 주제의 차이가 현저히 근접된 형태를 보이고 있는 점이 발견된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지역에서 이루어진 업적을 사적 배경과 함께 비교하여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양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동향과 업적이 활발히 교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비시켜거나 통합한다는 일이 어려운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는 집단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고, 지금까지 외국에서의 연구 경향에 관해서도 소개된 바가 없다. 따라서 외국에서 최근 몇년에 이루어진 변화의 소개만으로는 한국의 현 실정에 더 유익한 정보가 취득되지 못할 수도 있고 국내 연구를 촉진시킬 계기로 삼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와같은 이유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최근 동향에 초점을 두되, 필자가 보기에 한국의 사회심리학계에서 집단연구의 흐름을 고려 할때 연구상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거나 이미 제기되어 있는 문제의 접근에 깊고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만을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논문에서는 접근법의 최근 추세, 집단행동 연구의 사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소주제별로는 집단 사회화과정, 집단수행과 문제해결, 조직내에서 집단 생산성, 집단의사결정, 집단사고, 집단간 편견과 차별, 소수영향에 관해 논하고, 끝으로 전반적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접근법의 최근 추세

1980년대초에 230명의 북미주 사회심리학자들을 대

상으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 집단연구가 1980년대에 인기있는 사회심리학의 연구 분야가 되리라고 본 학자가 14%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Lewicki, 1982). 이 결과는 응답자의 73%가 인지사회심리학의 인기가 지속되리라고 예측한 사실과는 대조적이다. 이 조사결과에서 필자의 주목을 끄는 점은 인지사회심리학에 대한 선호도 예측이 아니라 집단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가 관심을 끌지 못하는 배경이다. 물론 인지사회심리학의 유행과 집단행동 연구의 침체가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예, Steiner, 1986, p.254).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심리학이 사회 상황에서의 개인 과정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인지적 접근과 만나게 되고, 그 결과 집단 단위로 행동을 다루는데는 부적절한 연구 패러다임이 우세하게 선택됨으로써 집단행동 연구를 침체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행위자가 개인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집단에서 나타난 현상을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성에 의해서 판단하거나 집단을 체계로 보는데 실패했다고 본다. 현재 역시 집단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개인 인지과정에 근거하여 집단과정다운 연구가 적다는 점에서 이 지적이 지니는 일면의 진실을 시인한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인지적 과정은 개인 과정에 국한시키지 않고도 2차관계나 집단에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행동을 다룬 인지과정이 개인과정에 국한되거나 되야한다는 견해는 취하지 않겠다. 다만, 현재까지 개인과정에 국한된 인지과정적 접근법이 집단행동 연구에 미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교훈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긍정적 영향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집단상황에서 집단을 단위로 보지않고 개인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이 크게 성행되는 현상은 1970년대부터라는 보고가 있다(Zander, 1979, p447). 인지적 관점이 성행된 이유는 집단행동 연구에서 이론의 결여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여지면서 이론 발전에 관심을 보인 나머지 여러 집단 현상 가운데 좁은 영역의 주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인과관계의 추론에 가장 낫다는 시대적 선호에 따라서 사회심리학 영역에서 유행하던 실험 중심의 연구법에 대한 선호 경향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본다면 집단에서 개인행동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제한된 영역에서 이론을 발전시키고 당시에 선포된 연구법에 의해서 이 이론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집단 상황에서 개인 행동 과정의 연구가 집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 면도 있다. 근본적 문제 가운데 하나로서 고립된 개인의 연구 결과로부터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이해할 만한 추론이 가능한지가 의문시 된다. 이 의문이 성립되더라도 집단 상황에서의 개인 연구인 경우에는 집단에서의 개인행동 연구로서 가치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집단을 단위로 한 지식으로서의 타당성에 대해서 비판이 가능하다. 또 한 가지 우려의 표명을 곁해서 덧붙여 지적할 점은, 개인 수준의 접근 방식으로서의 인지적접근을 시도함에 있어서 인지심리학의 현 단계가 사회심리학의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발전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근거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인지심리학에서의 성과가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 희망 때문에 인지적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은 사실이었지만, 이 현상은 인지영역의 성과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아작도 희망의 표명이며, 또한 인지가 아닌 행동이나 상호작용하는 집단관계는 인지분야에서도 새로운 연구 영역을 요구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무비판적 인지적 환원주의에는 경계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사회심리학이나 집단 연구에서 인지적 접근의 대두는 심리학내에 분야간 협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의 대두로 받아들임이 적절할 듯하다.

앞에서는 집단행동 연구의 분석 단위로서 개인수준의 연구가 기여한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집단수준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구와 집단 상황안의 개인수준에서 일어난 사건의 연구가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이 아닐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는 사회심리학에서 개인 과정 중심의 연구가 사회심리학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한 점이 사실이지만, 집단수준이나 개인수준에서의 이해 증진이 각각 다른 수준에서의 행동의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Steiner, 1986, P.284). 이처럼 상호 보완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 단계에서의 가장 큰 과제는 두 수준간의 상호관련성이 결여된 형태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는데서 찾아야 할 듯하다. 즉, 개인수준에서 연구된 집단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집단수준의 현상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지 못한 점도 문제이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집단수준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개인수준의 행동 이해나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점도 증시되어야 한다.

사회심리학 영역에 인지적 접근법이 크게 대두 되었다는 1970년대에 집단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나 활성화 되었는가? Steiner(1973)는 70년대에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개인과정인 아닌 집단과정을 다룬 연구들이 활성화 되리라고 예언 했다. 그러나 그 스스로 인정했다시피 이 예언은 적중되지 않았고, 다만 희망적 기대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1986).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1970년대에 와서 1950년대 후기처럼 집단 연구의 절정기가 다시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Steiner(1986)의 분석에 따르면 다음 요인들이 집단 연구가 침체된 중요한 이유들이었다. 우선, 사회학 및 심리학 영역에서 훈련 받은 학자들의 공동 노력이 1950년대 후반부터 격감했고, 연구에 들이는 노력, 경비, 실험면에서 집단이 개인보다 연구하기 어렵다는 실제적 면이 있으며, 그간 보고된 극소수 집단연구 결과에 대한 실망이 증폭됨으로서 태도나 커인 등의 다른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시켰다고 본다.

앞에서는 1980년대에 사회심리학내에서 집단 연구가 인기있는 연구분야가 못되리라는 한 예언을 살펴보았는데, 다른 학자들의 견해나 80년대의 결산 결과는 어떠한가? Steiner(1986)는 장차 집단행동 과정에 관한 연구가 다시 활기를 띌겠지만, 시기도 오래 걸릴 것이고 무엇보다도 심리학이나 사회학 분야의 밖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보았다. 그가 이처럼 예측한 배경은 환경 및 조직심리학 분야가 관련변인의 복잡성으로 인한 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한계에 다달으면 집단과 같은 중간 분석 단위의 연구가 활성화되리라고 본 때문이다. 또한 그 시점에서 보더라도 산업경영, 교육, 가족치료 분야의 연구가 이미 활성화 되었고, 또한 군조직에서의 집단 수행과 사기에 관해서 다시 관심을 갖으리라고 본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이와 같은 예언 가운데 집단 연구의 활성화와 최근의 종합학문적 특징은 Levine과 Moreland(1990)에 의해서 하나의 사실로서 보고된 바가 있다. 또한 집단 심리의 연구가 최근 활성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Miller(1989), Altman(1989)의 견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 관련 변인들을 중심으로

로 비이론적으로 수행되던 연구들과 비교할때 최근에는 이론적 배경을 갖고 연구되는 경향이 강하다(Levine & Moreland, 1990). 이러한 이론적 배경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새로운 이론의 개발에 못지 않게 다양한 사회심리학적 이론들을 소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활발하다(예, Mullen & Goethals, 1987). 그리고 연구방법과 관련해서는 최근 실험실에만 의존하던 현상을 탈피해서 자연 집단, 컴퓨터 모의장면 연구, 현장에서 자연집단과 유사하게 만들어진 모의집단에서 복잡한 행동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관찰기법이나 기록문서 분석기법 등의 이론바 비정통적 방법의 적용도 증가되고 있다. 학문 분야와 관련된 특징으로서는 조직행동이나 집단치료 분야 등과 관련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연구와 처방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앞에서는 20년간 북미 대륙에서 이루어진 집단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동일한 기간에 유럽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회심리학 연구를 언급하자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1969년 벨지움의 루뱅대학에서 개최된 유럽 실험사회심리학 연합회에서는, 그 당시의 유럽지역 학생운동같은 사회적 정점에 자극을 받아서, 집단적 색채가 강한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연구법과 이론의 필요성이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모색되기도 했다(Tajfel & Moghaddan, 1972, p.2). 이와같은 관점의 한 극단적 형태로서 북미 사회심리학의 개인수준의 환원주의와 인간에 관한 합리적 조화 모델에 반란을 꾀한다는 강령적 주장이 제시되기도 했다(Moscovici, 1972, p.21). 이와같은 일련의 사회 현상과 사회심리학에 관한 반성을 통해서 집단에 관한 연구에 강한 자극을 주게될 집단간 관계에 관한 이론들이 발표된다. 유럽 사회문제에 접근하려는 의도에서 유럽 사회심리학회를 연합된 형태로 활성화시키면서 주도적 학자들(예, Tajfel, Moscovici, Jaspers, Doise)이 집단간 관계에 관한 이론들을 제안하여 집단적 주제가 사회심리학의 영역내에서 활발한 연구영역이 되도록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서 형성되는 인간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단면을 상호관련성의 단면에서 이론화하여 연구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Tajfel이나 Moscovici처럼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룸으로써 유럽 사회심리학의 정체성을 수립하

려는 접근법이 유럽 사회심리학 전반적 지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주창자들에게 국한된 영향인지는 평가하기 쉽지 않다(Jaspers, 1986). 또한 현재로서는 이들에 의해 제안된 집단심리 이론들이 이론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최종 평가할 시점에와있지도 않다. 그러나 이들 주창자를 통해서 유럽 사회심리학자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또한 유럽 사회심리학의 사회문화적 맥락이나 집단간 갈등 등의 연구경향을 반영하는 특징점을 집합적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집단행동 연구의 사적 배경

역사의 기술과 해석은 현재와 미래의 관심사와 연결되는데 이 원칙은 집단연구의 역사라고해서 예외가 아니다. 이 절에서 다루는 사적 흐름은 이 원칙에 충실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연구사적 사건 중심의 기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특징이나 바람직한 연구 방향에 관한 조망을 제시한 후에, 이 조망하에서 관련된 자료들을 토대로 포괄성있게 소주제나 영역별로 범주화하여 연구경향을 일정한 시점별로 모두 가려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론에서는 각 시점별로 집단연구를 논평한 학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선별적으로 가려진 자료를 검토하고자 한다.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집단행동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① 관찰자 혹은 참석자의 존재가 개인수행에 미치는 효과와 ② 문제해결 능력에 있어서 개인과 집단간의 차이라는 두 주제를 많이 다루었다(Hare, 1976). 1930년대에는 집단 구성원이 왜곡된 정보를 믿게하는 집단 피압시성, 객석에서의 웃음 유발 요인, 집단성원들간의 경쟁이 미치는 효과, 친구로부터 조롱당할 동안 집단성원의 운동 능력의 변화 등이 많이 다루어졌다(Murphy & Murphy, 1937). 그후 30년대 후반에는 다양한 지도력 유형의 효과가 많이 다루어졌고, 산업장면에서 사회적 지원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역시 무시할 수 없다. 40년대에는 토론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 강의와 집단토의 방법이 행동변화에 미치는 상대적 효과의 비교등이 많이 연구된 주제들이었다(Bruner, 1950). 1950년대에 자주 보고된 주제들은

집단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분류하여 범주화, 강의와 토의기법에 의한 행동변화 효과의 비교, 집단압력에 의한 행동 및 신념의 합치, 특성이론적 지도자 유형의 효과, 지도력과 경영, 의사소통망의 효과, 타인행동과 다르게 행동한 사람의 갈등, 대인간의 사회적 세력과 영향의 출처 및 효과, 집단내 동맹의 형성 등이었다 (Zander, 1979). 이와같은 연구 주제의 특징 이외에도 50년대 초기의 연구 경향 분석자들은(Bruner, 1950; Katz, 1951; Crutchfield, 1954) 연구방법에 있어서 실험, 현장 연구 및 조사 연구들이 균형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1960년대에는 집단이 개인행동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 집단의사소통망의 결정요인과 이의 효과, 대인간의 사회적 세력과 영향력, 집단의 사회적 구조적 균형 등이 큰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의 변화와 아울러 연구방법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1950년대 전반까지 실험실, 현장 및 조사 연구 방법이 다양하고 고르게 사용되어서 균형이 잡혔던 바와는 달리, 60년대 후반부터는 현장연구보다는 실험실 연구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되었다(Riecken, 1960). 실험연구의 우세는 최근까지 계속되는 현상인데, 이 현상에서 짐작할 수 있다시피 집단연구에서도 실험설계, 측정 및 통계의 사용면에서 많은 진전을 보였다. 주변분야와 달리 사회심리학내에서는 이 경향이 현재에도 집단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지배적 현상으로 남아있다. 또한 60년대까지의 공통적 특징으로서 집단수행에 관해서는 이론이나 실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다(Steiner, 1964). 1960년대에 발표된 집단연구들이 사회심리학 전반의 확대와 아울러 양적으로는 크게 증가되었으나 (McGrath & Altman, 1966), 집단연구에 대한 1955년경의 열정은 크게 식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볼때 사회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미 큰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Steiner, 1983)

Zander(1979)의 보고는 실질적으로 몇년간만이 아니라 1950년대부터 30년간 집단 연구의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 분석에 의하면 1970년대에 많은 주목을 받은 연구 주제들 가운데 지도력, 개인간의 갈등, 협동과 경쟁, 사회적 세력과 영향력 등은 이전에

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들이었으며, 새롭게 다시 대두된 주제들로서는 사회적 촉진, 자극의 반복 제시에 의한 자극 선호 효과를 다룬 단순노출 효과, 개인의 판단과 비교한 집단 결정에서의 모험 이행 효과, 집단의 문제해결이나 의사결정의 규칙 등이었다. 그가 지적한 연구 경향의 사적 특징점 몇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많이 연구된 주제들은 일종의 유행 기간이 있어서 일정한 기간 주목을 끌다가 그후에는 없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2) 집단세력을 통한 구성원들의 영향력, 의사소통망, 지도력의 여러 단면, 토의자의 행동 분류 범주, 대인간 세력 등의 일부 주제들은 다른 주제들보다 오래 관심을 끌고 있으며, 3) 모험이행이나 죄수궁지게임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라고 해서 반드시 오랜 기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지는 못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또한 예전에 다루어진 연구 주제들로부터 새로운 연구 주제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했는데, 대체로 이전보다 정교한 형태로 발전된다고 보았다.

1970년대 발표된 연구로서 발전된 형태로 새롭게 대두된 주제 가운데 집단의사결정 과정이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집단내에서의 사회적 압력 연구로, 지도력의 양식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세력에 관한 연구로, 모험이행에 관한 연구는 집단성원들간의 분극화의 기원에 관한 연구로, 그리고 집단내의 경쟁에 관한 연구는 사회적 갈등의 해결 방법에 관한 연구로 변모되었다고 주장한다. 1970년대 후반의 전반적 연구경향을 요약하면 Zander(1979)는 1) 집단내에서의 행동에 관한 연구가 없는점, 2) 통제된 실험실 상황에서 성원 행동의 분류 집계나 연합 게임(zero-sum game)에 의한 협동-경쟁 연구 등 단순한 분석방법을 사용하는 연구가 대부분인 추세, 3) Steiner(1974)의 지적대로 집단을 단위로서 다룬 연구보다는 집단내의 개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연구 추세 등을 들었다. 4) 또한 1970년대 말에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연구 주제로서는 집단응집력의 기원, 집단내에서 사회적 압력의 성질, 집단의사결정의 역학적 과정 이외에 군집, 밀도, 물리적 공간에서의 성원배치, 외부로부터 집단에 가해진 압력 및 집단간 갈등 등이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고 보고했다.

McGrath와 Kravitz(1982)는 그 이전 보고자들의 보고 시점에 비해서 80년대 초반에 집단 연구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매우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이로

볼때 장래 역시 낙관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학적 모델이나 컴퓨터 모의 실험처럼 연구 방법의 세련된 점도 두드러졌다고 보았다. 연구 주제로 볼때는 집단내 구성원간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정보소통, 구성원간의 상호작용형태, 과제의 차이에 따른 생산성 모형, 사회적 궁지 등의 주제들이 이전에 관심을 보였다가 80년대 초에 다시 주목을 받았고, 반면에 이전보다 관심이 저하된 연구 영역으로는 죄수궁지 게임, 모험이행, 상상적 인물에 대한 매력, 방관자 개입 및 군집효과 등을 들고있다. 연구 경향에서는 이전보다 개선된 점이 있기는 하지만, 80년대초에도 이론, 방법 및 자료간의 일관성이 여전히 결여되어 있는 형편이고 이론적 배경이 없는 연구가 성행하는 점도 이전과 유사했다고 보았다. (McGrath & Kravitz, 1982).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현장연구가 중시되기는 했지만, 실험실 연구가 역시 압도적으로 다수이어서, 실험 방법이 지니는 외적 타당도가 여전히 문제된다.

집단의 사회화 과정

집단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시간 경과에 따라서 집단은 변화한다. 이 변화의 내용과 법칙을 파악하려는 연구는 수 없이 많지만, 크게 분류하면 두 종류로 대분된다(Hill & Gruner, 1973; Shambaugh, 1978). 재발성 단면모형에 따르면, 집단발전의 다양한 단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은 집단발전의 후기단계에서 재발된다고 주장한다. 예를들면, Bales(1965) 등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 그는 집단 사회화의 어느 단계에서도 집단구성원들의 과제지향적 행동들과 정서표현적 행동들간에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이를 회복하여 평형을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집단치로 과정과 관련해서 제안한 Bion(1961)의 이론에서도 집단이 발전되는 다양한 단계에서 1) 리더에 대한 의존 2) 정서적 지원을 얻기 위한 구성원간 짝짓기 및 3) 문제에 대면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집단에 대한 위협에 반응하기 위하여 싸우고-도주하는 반응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표 1> 집단발달의 단계

출 처	단 계 구 분					
Bales & Strodtfeck(1951)	오리엔 테이션	평가	통제			
Tuckman(1965) & Jesen(1977)	①형성기	②격동기	③규범기	④수행기	⑤해체기	
Fisher(1970)	오리엔 테이션	갈등	발생	강화		
Mabry(1975)	경계추구	양가감정	실현			
Hare(1976)	패턴유지	순응	통합	목표		
Winter(1976)	만남	분화	규범형성	생산		
Caple(1978)	오리엔 테이션	갈등	통합	성취		
La Coursiere (1979)	오리엔 테이션	불만족	생산			종결
Leventhal (1979)	갈등이전	시발	안정된 갈등	종결	갈등이후	
Moreland & Levine(1982)	조사	사회화	유지	재사회화	회상	

그러나 재발성 단면 모형과 구별되는 시계열 단계이론들은 집단발전단계에 전형적인 시계열적 질서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를 알아내고자 한다. 앞의 표 1은 Tuckman (1965 : Tuckman & Jensen, 1977) 이 대표적 시계열 단계이론들을 분석하여 명명한 자료에 Mullen(1987, p. 12)과 필자의 분석을 추가한 것이다.

이 표에 제시된 집단발전의 단계설들이, 보는 바와 같이, 단계구분의 기준이나 각 단계별 내용에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Tuckman(1965; Tuckman & Jensen, 1977)의 구분법에 따라서 각 단계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성단계에서는 구성원들간에 호감있는 유대가 형성되고, 정보를 교환하며, 타인과 상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형성하는 단계로서, 이 단계의 행동특징들을 살펴보면 상호작용이 시작되며, 초기 교류 때의 양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침묵도 잦으며, 모호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두번째의 격동기에는 타인들에 대한 불안, 구성원들간의 경쟁, 집단과정에서의 절차상의 의견 불일치, 갈등 등이 표면화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성원들의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발언이 중단되며, 출석률이 저하되고, 적대감이 나타난다. 세번째의 규범 형성기에는 역할과 관계형성을 통해서 집단구조가 이루어지고, 응집력과 조화가 높아지게 됨으로서 규칙에 대한 동의, 의견의 합의 도출이나 지원의 증가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네번째의 수행기에는 성취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과제지향성이 높고, 수행과 생산성을 강조하게 됨으로서 의사결정, 문제해결 행동의 증가와 정서적 행동의 경감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해체단계는 집단에 따라서 의무의 종결, 의존성의 격감 및 과제의 완수 등이 이루어져서 후회, 정서성의 증가 및 와해 등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표 가운데서 Moreland와 Levine(1982)의 집단 사회화과정 이론은 소규모의 자율적인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다수와 소수의 영향(Levine & Russo, 1987)이나 조직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 면에서 주목할만하므로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이 모형에서는 평가, 개입 및 역할전환의 세 과정이 집단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서 평가란 집단과 개인이 상호관련을 지니면서 상호간의 보상수준을 평가함을 말한다. 이 평가에 기초해서 집단과 개인간에 개입감이 발전되

지만, 이 개입수준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한다. 이 개입수준이 새 역할 전환을 요구할 정도의 결정 수준에 이르게 되면 집단이 다음 단계로 진전된다. 이러한 연속적이며 시계열적 단계에서 처음에는 집단과 개인이 각각 소속시킬 구성원과 소속할 집단을 찾는 조사단계가 진행된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집단에 속한후 집단으로서의 집단목표 달성에 기여토록하기 위하여 개인을 변화시키고자 하고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욕구들을 더 잘 충족시키고자 집단을 변화시키려고 한다. 세번째의 유지단계에서 집단으로서의 특정한 역할을 개인에게 부과하여 집단 목표 달성에 기여토록 하려고 하며, 개인으로서의 집단내에서 개인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의하고자 한다. 네번째 재사회화단계에서 집단이나 개인이 서로의 관계가 보상적이라고 보면 개입 수준이 높게 유지되지만 사회화 단계에서의 마찬가지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만족한 관계를 재확립하는 단계이다. 다섯째 회상단계는 개인이 기준에 미달하는 개입 수준일 때에는 개인이 집단을 떠남으로서 회상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에 이르러 집단과 개인은 회고적으로 관계를 평가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집단의 발전단계설들에 대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첫째, 집단형성의 목적이나 수행과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구체적 내용들을 제거하고 일반화할때 범하기 쉬운 형식화의 문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 이론들이 단계별로 서로 구별되게 단계의 수, 각 단계에서의 행동, 집단의 단계별 발전속도 등이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못하여 연구를 통해서 검증하거나 배척하기 어렵다(Levine & Moreland, 1990, p.590). 둘째, 몇 집단 대상의 질적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화되었기 때문에 이론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가 모두 문제된다. 셋째, 단계별로 열거된 과정이나 결과적 특징들로 볼 때 모든 집단이 전단계를 모두 지친다기보다 집단의 특징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단계가 달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과제수행이 일차적 목적이 아닌 친교집단에서는 수행기의 특징이 현저하게 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설들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측면에서 집단행동의 이해에 기여 할 수 있다.

첫째, 집단의 시계열적 변화에 관한 일반이론이 특수한 집단들의 시계열적 변화연구를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집단이 설정 목적, 구성원의 상호작용형태, 수행하는 과제, 혹은 집단규모 등 수 많은 변수가 집단의 시계열적 변화에 작용하므로, 예를 들면 치료집단처럼 한정된 집단특성을 정해두고 집단의 시계열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는 일이 단계적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더 유익할 수 있다. 둘째, 일반화된 시계열적 단계를 가정함으로써 다양한 주제의 집단연구 결과들을 집단발전의 단계별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러한 단계발전별 정리를 통해서 상충되는 듯이 보이는 연구결과가 실제에 있어서는 시계열적으로 변화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지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연구를 포함하는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초기단계를 다루고 있다. 피험자를 모아서 지시를 주고 이미 정해진 과제를 수행토록하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초기 발달단계의 집단들을 다양한 과제에 배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일탈자에 대한 집단의 반응(Schachter, 1951), 집단의 사결정의 모험이나 보수이행을 다룬 집단분극화(Stoner, 1961), 집단간 갈등(Tajfel, 1974; Brewer, 1979) 연구들은 초기의 형성기나 격동기를 다루고 있다. 동조행동(Asch, 1956)이나 상호작용이 있는 집단간 갈등현상(Sherif, 1936)의 연구는 규범형성과정에 관련되므로 규범기를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미 형성되고 상당히 발전된 자연집단을 다룬 집단수행 연구(Steiner, 1972)는 집단수행기를 다룬다. 이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집단의사결정에서의 분극화현상을 다루면서도 초기 형성기나 격동기가 아닌 규범형성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수도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간 갈등이나 협동과 경쟁현상도 역시 격동기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자연집단에서 과제수행기에 이루어진 현상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추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초기 집단형성기의 가입과정이나 집단해체기의 탈락과정에 대한 연구가 현재로서는 극소수에 불과해서 단계별 구분으로 볼때 집단연구에서도 양적 균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수행과 문제해결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집합적 수행을 한때 집단문제해결이라고 불렀는데 (Brandstatter,

et al 1984), 주로 답을 얻기 위하여 집단 정보처리를 강조하는 과제를 다루는 경우를 말한다(Davis, 1969). 초기의 전형적 과제로서는 Shaw(1932)가 사용한 단어 맞추기의 집단적 수행을 들 수 있으며,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를 가장 활발히 연구된 시기로 볼 수 있다(Davis & Hintz, 1982). 1950년대에 두드러진 사건으로는 산업 장면에서 창의력을 육성하려는 집단문제해결 연구들을 들 수 있는데, 잘 알다시피 이 브레인스토밍(Osborn, 1957)은 집단 참여자들이 창의적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집단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 목적이다. 최초 연구에서는 이 기법이 광고산업에 적용되었으나, 잘 통제된 연구들(예: Taylor, Berry & Block, 1958; Dunnette, Campbell & Jaastad, 1963)에서는 매우 추상적인 문제를 다룰때 집단적 아이디어의 산출법이 집단과 동수인 개인별 수행의 총화보다 좋지 못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최근 초기 연구들의 연구설계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여 브레인스토밍 실질 집단, 개인별 수행들을 집단규모 크기에 따라서 병합한 수행,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없이 집단에서 수행하는 명목집단의 수행들을 비교하여 집단문제해결의 과정을 이해하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브레인스토밍 실질집단보다 명목집단에서 수행이 좋았다(Diehl & Stroebe, 1987). 명목집단에서보다 브레인스토밍 집단에서 생산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뒤에 살펴볼 사회적 태만의 결정요인들과도 관련된다. 또한 Steiner(1972)의 생산성 결정요인들인 과제요구, 지원 및 과정 가운데 과정요인들과도 관련된다. 특히 이 과정손실 요인들 가운데 구성원간 협응에 따른 손실과 유사한 성질을 지니는 생산과정에서의 순조롭지 못한 막힘이 평가우려나 무노력 편승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써 브레인 스토밍 집단보다 명목집단에서 수행이 높아지는 원인이 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Diehl & Stroebe, 1987).

한편, 어떤 수행 과제인가에 따라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집단의 문제해결이 개인의 문제해결보다 항상 나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 대표적 인물로는 Steiner(1972)를 들 수 있겠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집단의 생산성은 과제 수행상의 필요 조건을 나타내는 과제요구, 집단이 활용할 수 있는 물적 및 인적 자원, 그리고 집단 성원들

이 과제 달성을 하기 위한 상호작용 과정의 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데 이 세 요소에 의해서 집단 구성원 개인들의 잠재적 수행을 집단으로 총화하면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실제 집단 생산성은 집단 구성원이 지니는 자원들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따른 손실 때문에 결코 잠재적 생산성보다 나올 수가 없다(Steiner, 1972, p.9). 잠재적 생산성이란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과제 요구 사항에 적합하게 자원들을 활용할때 초래되는 최대 생산성 수준으로 정의한다(Steiner, 1972, p.68). 이러한 이론을 배경으로 과제 유형별로 잠재적 수행량과 대비되는 실제수행의 결손량을 추정할 수 있는 등식을 제시했다. 구성원간의 협력 형태를 결정짓는 과제분류를 전제로해서 비집합과제와 집합과제에서는 과정에 따른 결손량이 다르다고 보아서 잠재적 수행으로 볼때 수행에서 성공할 백분율을 산출하는 등식은 집단 구성원 수와의 함수관계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집단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구성원의 비율을 p 라고 할 때, 여기서 p 는 과제난이도에 의해서도 좌우되고, 수행하지 못한 구성원의 비 $Q=1-p$ 이다. 비집합과제에서의 잠재적 수행 백분율은 과제 수행능력을 지닌 사람의 수와 집단 규모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므로 $100(1-Q^n)$ 이나, 집합적 과제에서는 일정 수준의 유능한 사람 수에 따라서 성공률이 달라짐으로 가장 능력이 낮은 $100p^n$ 퍼센트의 구성원들이 수행에 성공하지 못할 백분율은 $100(1-p^n)$ 이 된다. 만약 집단 구성원 가운데 일정한 수의 사람까지 수행을 완료 해야만 하는 유사집합과제에서는, i 번째의 유능한 사람까지를 문제삼을때 $100(n+1-i)/n+1$ 번째로서 수행성공 수준을 백분위로 표시할 수 있다.

Steiner의 생산성 결정요인들인 과제의요구, 자원 및 과정 가운데 과정손실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이 극히 작운데 착안하여 그는 과정손실에 관련된 집단규모의 증가에 따른 협응결여, 집단성원의 구성성분, 집단역동성 결손과 관련된 구성원의 동기요인들에 의해서 잠재적 생산성 혹은 실제 생산성이 영향 받는 과정을 검토했다. 그후 이 요인들 가운데서 집단에서의 집단협응이나 동기손실(Ingham, Levinger, Graves & Peckham, 1974), 그리고 집단규모로 구성원의 동기가 저하되어 생산성이 낮아지는 사회적 태만 현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사회적 태만의 발생 원인으로서의 확인불가능성(Harkins & Petty, 1982)과 사회적 충격(Latane, 1981; Williams & Harkins, 1979; Latane, 1981)에 의한 설명이 제안되었다. 또한 태만의 제거나 감소와 관련된 요인들로서는 정체성과 구성원 기여의 독특성 증가(Harkins & Petty, 1982; Kerr & Bruun, 1981), 구성원별 기여도가 평가되는 정도(Harkins & Szymanski, 1987), 과제에 대한 구성원의 관여와 작업에 대한 책임감당(Brickner, Harkins & Ostrom, 1986; Weldon & Gargano, 1988), 과제의 매력도(Zaccaro, 1984) 등이 지적되었다. 사회적 태만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사회적 충격이론은 집단 규모의 증가에 따르는 수행 결손을 예측하는 모형을 제시했지만, 사회적 충격이 유발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는 면에서 볼때 이론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Harkins와 Jackson(1985)는 사회적 충격이론의 배경에서 사회적 태만을 경감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타인과의 비교 과정을 통해서 개인의 기여도가 평가되리라고 예상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보다 일반화해서 구성원의 개인별 확인가능성을 증가시키거나 혹은 과제의 복잡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 태만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태만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이론들은 Steiner와 마찬가지로 집단수행에서는 개인수행의 총화를 기준으로 할때 결손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수행과제의 성질을 가산적 과제에 한정하더라도 집단의 수행이 집단규모와 등수의 개인수행의 총화보다 항상 낮아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먼저, 집단의 잠재적 생산성을 결정짓는 방법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자. 대체로 집단의 잠재적 수행은 집단수행 이전에 구성원 개인별로 수행케 하여 과제의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다(예, Steiner, 1972; Latane, et al, 1979). 그런데 개인 대 집단생산성의 비교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① 개인의 수행을 집단 구성원 수행의 총화와 비교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에는 말할것도 없이 대부분의 과제유형에서 집단이 우수할 확률이 높다. ② 집단성원들 각각이 개인으로 수행한 개인별 수행을 기준으로하여 집단규모에 따른 수행의 총화를 산출하고(통계화 집단) 이를 실제 집단의 수행과 비교하는 기법으로서, 이는

개인수행을 기준으로하여 통계적으로 산출된 집단수행치와 실제 집단수행치를 비교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가장 흔히 쓰이는데, 이의 예로써 Steiner의 실제수행과 잠재적 수행 측정치를 들 수 있다. ③ 통계화 집단의 전체 산출을 취하지 않고 최선의 구성원 수행을 취하여 실제수행과 비교하는 기법이다. ④ 노력등의 지출을 고려하여 수행자 개인당 단위 시간에서의 산출을 계산하는 기법도 쓸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집단 수행의 측정 기법을 썼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집단에서 수행할 때의 개인 능력이라는 자원이 정확히 측정되며, 후에도 비교적 고정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고립된 개인 조건에서 개인 수행 잠재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불변적이지도 않고, 또한 불변적이라고 하더라도 타인 존재에 의해서 촉진적이거나 금지적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는 개인별 잠재력을 구성하는 성분들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성분들은 개인별 사전 경험이나 수행 목적과 같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지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에서 본다면, 집단수행이 개인의 잠재적 수행들을 총화한 값보다도 더 큰 집단과정의 수행 증가조건이 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다. Steiner(1972)가 집단과정에 따른 손실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술 요인들 가운데 집단협응, 집단역동성, 집단 구성원의 성분 및 집단 구성원의 동기 등 대부분의 요인들이 집단과정에 따른 수행증가를 가져오는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사회적 촉진 이론들에서 보는 바와같이 타인의 단순존재가 수행수준을 최고화하는 수준으로 흥분을 유발시키거나(단순존재설, Zajonc, 1965), 타인의 평가가 있으리라고 우려되거나(평가우려설, Cottrell, Wack, Sekerak & Rittle, 1968), 과제난도가 높지 않을 때는 개인조건의 수행보다 집단조건에서의 개인수행이 높았다.

사회적으로 발생된 추동에 근거해서 사회적 촉진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개인수행과 비교해서 집단수행의 우수성을 이해하는데 좋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타인의 단순 존재에 의해서 수행이 증가된다는 Zajonc의 추동설은 추동 유발의 조건을 명세화하지 못했다. 한편, 평가우려설을 다룬 Cottrell(1968)의 연구에서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타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세한 수

행반응을 활성화 시켜서 수행촉진이 생겼으나, 타인이 관찰할 수 없도록 눈을 가린 조건에서는 사회적 촉진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평가우려설을 지지하는 고전적 연구결과이지만, Henchy와 Glass(1968)의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추동은 타인의 단순입석이 아니라 관찰자가 점한 지위에 따라서 변한다. 또한 Cottrell(1972)이 주장하는 평가우려설은 타인으로부터의 정적평가 혹은 부정평가가 예견되는 조건들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는 부분적으로만 보고되었다(Geen & Gange, 1977). 대부분의 연구에서 부정적 결과가 기대된 때에는 사회적 촉진이 나타났고(Geen & Gause, 1977), 정적인 결과가 기대된 조건에서는 대체로 평가우려가 수행을 촉진시키지 않았다(Geen, 1979; Seta & Hassan, 1980; Weise & Miller, 1971).

사회적 촉진을 발생시키는 조건을 설명하는 다른 추동설로서는 주의분산-갈등설을 들 수 있다. 청중이 있게되면 다루는 문제로부터 주의분산을 일으키게 되므로 추동수준이 높아지며(Baron, Moore & Sanders, 1978; Sanders, Baron & Moore, 1978), 이로 인해서 타인에 주의집중하는 덜 우세한 반응보다 우세한 반응이 활성화 된다. 또한 평가우려가 주의분산으로 인한 추동유발의 설명이 될 수 없음을 보인 연구(Groff, Baron & Moore, 1983)도 보고되었다.

사회적 촉진에 관한 또 다른 이론으로서 불확실성(Zajonc, 1980)과 사회적 모니터링(Guerin & Innes, 1982)에 의한 추동유발설을 들 수 있다. Zajonc(1980)의 주장에 의하면 타인의 존재는 자신과의 상호작용을 함축하는데 인간은 예견할 수 없는 사회적 환경에서 변화에 항상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환경에서 타인 존재가 불확실성을 일으킴으로써 상호작용 해야 할 자신에게 추동을 일으킨다. Guerin과 Innes(1982)는 Zajonc(1980)의 주장을 발전시켜서, 타인이 있게되면 불확실성을 일으키며 반응할 예비도를 지니게 되기 때문에 타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예견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타인들을 관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Baron(1986)은 주의분산-갈등설과 동일한 맥락에서 주의과부화(attention overload)설을 제안한다. 이 설에서는 사회적 상황, 흥분유발(arousal) 및

인지적-주의적 과부하가 연결된다고 가정하고 사회적 촉진현상은 흥분이 유발된 사람이 주의와 단서활용의 범위를 축소시키게 되는 과정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추동수준이 높아지면 주목하는 자극 혹은 단서들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Easterbrook (1959)의 주장에 근거를 두고 이론을 전개한다. 즉, 낮은 추동수준에서는 과제와 무관한 지엽적 자극들에 대해서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지만, 높은 흥분수준에서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중심적 단서들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쉬운 과제는 주의집중할 중심적 단서들이 비교적 적은 수이지만, 복잡한 과제일수록 주의 집중해야 할 과제의 관련단서들이 매우 많다. 앞에서 언급한 흥분수준에 따른 주의집중 범위의 축소 경향과 과제난도에 따른 주의집중 요구도의 증가를 연결 시켜보자. 흥분수준이 높으면 과제난도 수준과 상관없이 수행과제가 지니는 단서들에 폭넓게 주의집중하지 못하게 되기때문에, 과제가 쉬울때는 무관한 주의분산 단서들에 대한 주의집중을 피할 수 있으나, 과제가 어려우면 과제와 관련된 중심적 자극들에 대한 주의집중에 간섭을 받게 된다.

앞에서는 집단 수행이 저하되거나 촉진되는 현상을 독립적으로 각각 살펴보았다. 그러나 집단이나 과제의 성질이 동일한 경우에는 수행의 저하현상과 촉진 현상을 독립된 요인이나 과정으로 설명하는데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동일한 요소들이나 과정들이 작용한다는 일반적인 이론의 형태로 두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통합하거나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시도로서 Harkins (1987; Harkins & Szymanski, 1987)의 연구를 들 수 있다. Harkins와 Szymanski (1987)는 사회적 촉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분류하여, ① 추동설(주의분산-갈등설, Baron, 1986; 평가우려 Cottrell, 1972; 사회적 모니터링, Guerin & Innes, 1982; 함께 있음, Zajonc, 1980), ② 타인의 존재가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본인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한다고 보는 설(Geen, 1987; 자기과시, Bond, 1982; 자각, Carver & Scheier, 1981), 그리고 ③ 주의분산-갈등에 대한 정보처리적 관점 (Baron, 1986)으로서 타인의 존재가 주의의 초점 및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의 세 종류로 대분한다. 그 가운데서 추동설로 분류된 평가설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타인의 존재가 평가와 경쟁(또 다른 경우는 평가 혹은 경쟁일 수 있다)을 일으킴으로써 평가우려가 추동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 현상을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 한다.

이 에에서 보는 바와같은 일관된 해석의 제안은 각 실험 상황들의 사회적 의미가 지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부각될 수 있다. 사회적 촉진에 관한 초기 실험인 Triplett (1898)의 연구에서는 동일과제를 각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타인들이 있을 때의 개인별 동일 행동(coaction)효과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태만에 관한 Ringelmann (1913)의 연구에서는 하나의 줄을 함께 당기는 집단과정을 다루고 있다. 개별적 동일 행동 상황에서는 참가자가 누군지 알 수 있으며, 개인별 수행은 동일한 과제를 다른 타인의 수행과 비교되리라고 예견되는 상황이다. 이 비교 예견 상황들을 보면 평가우려와 관련된 상황이 많다. 따라서 이 경우처럼 타인과의 동일행동 조건에서 사회적 촉진 현상을 다루면서도 개인수행 특징이 개인적으로 다루어질지 혹은 합산될지가 달리 예견되는 조건들을 다루고 있다.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회적 촉진이 예견된 실험조건들 가운데에는 평가우려나 다른 추동효과와 관련되는 확인 가능성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다. 확인 가능성은 사회적 태만 이론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태만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기보다 확인가능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평가와 같은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의 원인일 수 있다.

실제로 Williams, Harkins 및 Latane (1981)는 수행자 개인이 확인 가능한 조건에서는 사회적 태만 수준을 낮춘다고 보고했으나, Harkins와 Jackson (1985)은 이 결과를 확인가능성이 사회적 태만을 직접 매개한다기보다 확인가능함에 따라서 타인과 비교하여 수행평가를 받으리라는 예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수행과제가 서로 같거나 다른 방식으로 조작한 확인가능성과 평가우려를 추론할 수 있는 수행의 비교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조작한 실험을 실시했다(Harkins, 1987). 수행자들이 자신의 수행을 타인의 수행과 비교하리라고 믿은 조건에서만, 수행결과를 확인가능하게한 조건에서, 확인가능하지 않고 개인들의 수행을 합산하는 조건보다, 제시한 아이디어의 수가 많았다. Harkins의 일련의 연구는 사회적 촉진

과 사회적 태만 현상을 연결지워서 평가우려 요인이 두 현상에서 모두 작용하고 있음을 보인 하나의 예이다. 물론 과제의 성질 및 질적 차이나 난도의 차이에 따른 효과가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 현상을 연결지워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 또한 과제의 성질을 집단의 수행절차나 법칙과 관련짓지 않더라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학습과제와 이미 학습된 내용의 수행과제로 구분하여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찾는 일도 중요하다(Zajonc, 1965; Geen, Beatty & Arkin, 1984, p.185-188). 학습과제인 경우에는, 흥분유발이론(arousal theory)에서 보는바와 같이, 사회적 상황과 활성화과정간의 중계과정에 초점을 맞추므로 흥분유발에 의한 학습저하 현상의 설명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추동설은 활성화과정에서부터 수행까지의 중계과정에 초점을 두고 추동이 높을때 반응의 촉진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 효과를 연결지워서 연구하려면 실험에서 다루는 사회 상황의 의미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의 견해로는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에서 사용된 연구 전형은 대체로 다음 표 2에서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자의 유무와 수행결과와 비교 가능성 함축에 따라서 구분되는 네 조건 가운데 세 조건에 해당된다.

〈표 2〉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 연구의 전형

	혼자 수행 함께 수행	
수행결과와 사용 예견됨	1	2
수행결과와 사용 예견 안됨	3	4

이 표로부터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을 연결지워 연구하는데 유용한 시사점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촉진에 관한 실험은 전형적으로 1조건과 비교해서 2조건에서의 수행의 우수성을 예언한다. 물론 2조건에서 평가우려 등으로 인한 높은 추동 유발 상황에서의 수행 저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타인과 함께 수행하는 조건들도 동일 과제만이 아니라 다른 과제들을 사용하는 등으로 다양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촉진의 측면이 이 전형에 따라서 연구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이 분석에서 유의해야할 점은 개인이나 집단 수행

측정치로 어떤 지표를 사용하던 간에 사회적 촉진이 제 2조건과 마찬가지로 1조건 역시 일어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적 태만에 관한 실험은 전형적으로 2조건에 비해서 4조건에서 수행이 저하되리라고 예언한다. 혼자 수행하는 조건이 사용되더라도 수행결과가 알려지는 1조건과 비교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일하게 공동 수행 상황을 다룬 사회적 촉진의 실험에서조차도 3조건과 비교한 2조건 효과는 실제로 다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개인수행을 보려는 표방된 목적과는 달리, 제 3조건에서도 수행이 실험자나 함축적 타인에 의해서 직접 관찰되거나 간접적으로 평가적 판단이 예견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사회적 태만, 개인 혼자의 수행, 수행결과와 사용이 예견된 개인수행, 및 사회적 촉진이 순서대로 심리적 동일 연속체 개념에 의해서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오히려 2조건을 연결 고리로해서 1조건과 비교하기도 하고 혹은 4조건과 비교함으로써 타인과의 사회적 과정이 미치는 효과를 정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사회적 상황이나 과제의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도 개인의 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 촉진 및 태만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일반이론도 모색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집단이나 개인상황에서 개인들의 판단에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수행의 기대수준을 형성한다고 본다. 수행에는 능력, 주의집중력 및 상황 요인들이 개제되므로 이 기대된 수행수준과 개인의 수행이 반드시 일관성 있게 상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한 능력수준이거나 능력수준이 문제되지 않아서 동기가 크게 수행과 관련되는 조건에서라면, 이 기대수준에 따라서 수행에 쏟을 노력수준이 달라지므로 수행에도 정적으로 상관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하고 보면 개인이나 집단 수행 수준의 예측이나 판단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이거나 과제의 요인들이 개인수행이나 최종적 집단 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평가우려, 자존심 유지, 주의분산, 자기 과시 등의 사회적 요인들은 동기와 관련해서 기대를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기대를 높이거나 낮출수 있는 사회적 및 과제요인들은 모두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에 관련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추론에 근거하여 기대의 상승이나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및 과제 요인들

을 체계화하는 일이 과제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주목하여야할 점은 기대되는 수행 수준에 대한 판단이 성립되어서 동기수준이 정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여러 유형의 보상, 비교평가 등의 사회적 요인이 성과 기대의 예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대형성과 기대에 따른 수행 실행 사이에는 타인과 비교해서 자기 수행을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거나 혹은 타인과 비교해서 최적화하는 규칙 가운데 어느 규칙을 선택하게 된다.

조직에서의 집단 생산성

여기서는 사회적 촉진이나 태만등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질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의 활동결과에 관해서 언급한다. 이 영역은 조직 유효성과 관련해서 조직행동분야의 작업집단을 중심으로 연구된다. Hackman(1978)의 집단수행에 관한 사회적 과정 모델 제안이후 최근에는 몇가지 이론이 제안되었는데(예: Gladstein, 1984; Hackman, 1987), 이 이론들 역시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검증이 어려운 형태로 제안되었다(Goodman, Ravlin & Schminke, 1987). 여러 연구 결과들로부터 볼 때 집단수행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생산성에 있어서도 집단의 과제, 집단이 지닌 기술, 응집력 및 규범등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구성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의 질과 양, 리더행동 및 수행과 연결된 보상구조 등도 중요한 요인이다(Levine & Moreland, 1990). 집단생산성의 저하에 관련된다고 여겨지는 사회과정에서의 동기와 협응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전략들이 고안되었다.

1) 팀개발 방법은 문제의 확인, 감수성훈련 및 역할 분석을 포함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포괄하는 방법으로서 집단 구성원들의 대인관계 기술 및 과제수행 기술을 증진시키는 기법이다(예, Buller, 1986).

2) 집단생산의 질 개선운동인 QC는, 일본에서 잘 알려진 기법으로서, 구성원들이 생산과 관련된 문제들과 이의 해결책들에 관해서 정규적 회합에서 토의하는 방법이다(Marks et. al., 1986).

3) 자율적 작업집단은 직무요인과 사회적 대인관계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기술적 체계이론(Socio-technical systems theory)과 조화되는 형태로 제안

되었는데, 외부의 통제가 아니라 집단의 자기조절을 통해서 사기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Guzzo, Jette & Katzell, 1985).

4) 자율집단기법에서 사회적 과정을 증시하는 점과 유사하게 생산성에 관한 상황연계이론에서는 집단이 당면한 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집단구조와 과정을 만듦으로써 수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Schoonhoven, 1981).

5) 참여적 집단목표설정에서는 구성원들의 노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높은 생산 목표들을 집단에서 결정한다(Pearson, 1987). 이 기법은 팀 개발 및 자율적 작업집단 접근법과 개인의 목표설정에 따른 수행효과(Locke & Latham, 1990)의 연구를 토대로 제안되었다. 이와 아울러 구성원의 개인 및 집단 목표들간의 일치도가 집단수행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Mackie & Goethals, 1987). 이는 참여적 목표설정이 개인목표와 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6) 직무설계 혹은 과제설계가 구성원의 동기를 향상시킴으로써 집단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Herzberg을 시작으로 Oldham과 Hackman(1975)도 직무가 지니고 있는 자율성, 정보환류(귀환), 정체성, 다양성 등의 객관적 직무특성이 구성원의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를 적용하여 과제의 중요한 성질들을 변화 시킴으로써 집단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Salancik과 Pfeffer(1978)의 사회적 정보처리 모형이 제안된 이후 최근에 와서는 직무나 과제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은 정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과제의 지각이 중요시되고 있다(예, Griffin, 1987).

사회적 정보처리모형에서 보면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집단구성원의 과제지각에 영향을 미쳐야만 한다. 집단의 생산성과 관련해서 집단수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과정이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현상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집단수행의 결과로서 나타난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귀인에서 두 편향을 다룬 연구들(Leary & Forsych, 1987)이 보고되었다. 자아중심적 혹은 자기봉사적(기여적) 편향은 집단성공을 자신의 기여로 귀인하고 집단실패는 다른 원인들 때문이라고 귀인할 경우를 말한다(Adams Rice & Inston,

1985). 집단수행의 귀인에서 볼 수 있는 자아중심적 귀인과 사회중심적 귀인현상에 대해서는 정보처리이론, 자존심이론 혹은 자기과시이론으로부터 다소간에 타당성이 있는 설명이 제안되었다. 개인수행의 결과인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귀인에 따라서 감정이나 동기가 달라지는 점은 이미 보고되었다(Green & Mitchell, 1979, 1981; Weiner, 1980, 1985). 이와 마찬가지로 집단수행의 결과에 대한 귀인 역시 집단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Leary & Forsych, 1987). 예를 들면 수행결과에 맞추어 보상을 제공하거나 부담을 형성, 동등 혹은 욕구에 따라서 분배하는 분배규칙의 사용에도 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배규칙은 다시 다음 수행에서 집단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 분배규칙의 결정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후행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도 집단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단의사결정

집단의사결정이란 일반적으로 집단구성원이나 집단 외부인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합의된 견해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정의는 집단이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루게 되는 활동을 중심으로 집단 과제의 유형별 분류체제를 마련한 McGrath(1984)의 의사결정과제에 해당 된다. 그러나 이 논평에서는 이 분야 연구과제의 하나의 전형이 되고, 최근에도 연구되는 극단 이행 혹은 집단 선택 이행 현상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집단으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려는 초기 연구에서 집단이 개인보다 모험적 결정을 하는 현상이 보고되었다(Stoner, 1961). 이 모험이행은 집단토의를 거친후 집단의사결정은 물론 개인 의견에도 모험성이 큰 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현상이다. 집단 토의전에 개인들의 반응으로 본 모험도 평균은 토의후에 집단에서 얻은 집단특점의 평균보다 덜 모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된 문제해결 과제는 Wallach와 Kogan(1959, 1961)이 고안했는데, 충고자로서 충고한 견해의 성공확률을 판단케 하는 "선택 딜레마"문제였다. 그런데 선택 금지 상황을 다룬 초기 연구에서도 몇 주제에서 집단의 모험이행과 대립되는 조심이행 현상이 있었

다(Stoner, 1961). 이 결과의 반복검증에 근거해서 최근에는 모험이행과 보수이행 현상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들로서 집단극화나 집단선택이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그러나 두 개념의 뜻을 구분해서 정의하자면, 집단극화란 집단에서의 토의 후에 전에 비해서 개인의 의견이 더 극단적으로 되는 경향을 말한다. 한편, 집단 선택이행이란 집단에서의 토의 후에 집단구성원들이지닌 원래의 의견을 평균보다 더 극단적으로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말한다.

Brown(1986)이 집단극화와 관련된 연구 자료들을 세부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도 알수 있듯이, 큰 이행을 보인 문항들은 집단토의 이전에도 극히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문항들이었다. 다시 말해서 처음의 집단 토의 이전의 모험이나 보수적 선호도가 중간인 문항들은 집단토의 후의 의사결정에서도 모험이나 보수 이행된 정도가 작았다. 집단토의 후의 집단극화현상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집단토의 후에 원래의 경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극단화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더 상술하면, 원래의 모험 혹은 보수 선호도와 동일 선호방향에서 극화로 이행된 크기와의 사이에는 매우 높은 정적상관을 보인다. 이 분석이 정확하다면 초기 연구에서처럼 모험이행이 보고된 연구결과나 후기에 확인된 보수 이행현상은 연구에 사용된 의사결정 문항의 모험 혹은 보수적 선호도에 의해서 예언될 수 있다. 선택금지 상황에서 토의전의 개인별 의사결정에 의해서 토의후 집단 의사결정에서의 이행 규모를 예언하여 지 지된 연구결과는 Myer와 Arenson(1972)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선택금지 질문지에 반응한 사전의 모험-보수 선호도에 의해서 모험이거나 보수이행의 방향 및 규모까지 예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만으로 선택이행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집단토의 후에 집단이나 개인의 의사결정이 극단으로 이행되는 집단선택이행이나 집단극화의 두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서로 다른 기제가 작용한다고 보는 견해(Hinsz & Davis, 1984; McGrath, 1984)도 있으나, 대다수는 동일한 기제에 의해서 설명된다고 본다(Levine & Moreland, 1990). 이들 현상의 설명에 사용된 집단이행 과정설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론들로서는 ① 사회비교이론 ② 설득주장이론이 가장 우세하며, 그 이외에도 유력한 후보이론으로서 ③ 집단간 갈등이론을 집단내 의사결정에 적용한 사회적 정체이론

의 변형과 ④ 집단의 의사결정때 묵시적으로 사용되는 집단에서의 의사결정규칙 이론을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비교이론과 설득주장이론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많은 학자들(Brown, 1987; Fraser, 1971)은 이 두 과정이 모두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므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도 선택이행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물론 두 과정 중에서 사회비교(Baron & Roper, 1976; Goethals & Zanna, 1979)나 설득주장(Vinokun & Burnstein, 1974; Burnstein, 1982)만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또한 두 영향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더 이상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면 두 과정이 가산적으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한 덕웅과 성한기, 1986).

두 과정의 가산성을 가정하는 이론은 내용의 차이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사회비교나 설득주장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선택이행이 일어나지만 두 요인이 동일한 비중으로 모두 가산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Singleton, 1973). 다른 하나는 사회비교가 遠因으로서 선택이행에 동기화시키며 설득주장은 近因으로서 작용하므로 두 요인이 모두 있을때만 선택이행의 가산적 상승효과가 생긴다는 주장이다(McGrath & Kravitz, 1982; Sandus & Baron, 1977).

사회비교이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집단내 타인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알게되면 비교과정을 통해서 선택이행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Festinger(1951)의 사회비교이론에 근거한 이 이론은 선택이행 상황에 적용하면 대체로 다음의 세 명제들로 분석 정리될 수 있다. 먼저 선택 궁지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험, 보수 혹은 평균으로 되려는 욕구를 일으킨다. 다음, 구성원들의 견해들의 분포를 알기 이전 단계에서 각자가 자신의 입장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집단 구성원 개인들의 입장을 나타내는 실제 분포를 알게되면 자신의 입장이 바라는 바와 다르다고 보는 사람들의 경우에 변화를 꾀하려는 동기가 생기고, 개인별 궁지 정도에 따라서 모험이행 혹은 보수가행이 나타나는 집단평균의 의사결정을 하게된다. 이와같은 주장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집단토의

과정에서의 집단역학이 선택이행에 일으키는데 필요하거나 충분한 요인이 아니다. 이러한 사회비교이론의 예언을 지지하는 연구결과는 집단토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타인들의 의사결정 분포를 알기만 하면 선택이행이 일어난다는 보고에서도 지지되었다(한 덕웅과 성한기, 1985; Cotton & Baron, 1980; Goethals & Zanna, 1979).

설득주장이론에서는 집단토의과정에서 제시되는 극단적 주장들의 내용이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선택이행이 나타난다고 본다(Burnstein & Vinokun, 1977). 즉, 집단내에서 공개적으로 상호교환되는 설득 주장들이 원인요인이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토의과정에서 개진된 설득 주장들의 강도가 동일하다면 모험적 주장과 보수적 주장들의 상대적 수에 의해서 그 비율과 정적 상관을 지닌 형태로 최종적 모험이행이거나 보수가행이 초래된다(Vinokur & Burnstein, 1974; Ebbesen & Bowers, 1974). 그러므로 사회비교 이론에서처럼 타인들의 의사결정 분포를 알기만해서는 선택이행이 일어날 충분한 조건이 못된다. 그런데 어떤 주장이 설득적인가는 자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득 주장 이론가들은 대체로 주장의 설복력(cogency), 모험이나 보수의 방향강도 및 주장의 신기성 등이 설득력을 결정한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Burnstein, 1982; Burnstein & Vinokur, 1977). 따라서 집단토의 과정에서 개입된 주장이 보수-모험의 연속체에서 강하고 설복력이 있으며 트의 이전에 접해보지 못한 내용일수록 선택이행이 클 가능성을 지닌다.

앞에서 언급한 사회비교나 설득주장 효과는 집단에 의한 사회적 영향을 두 측면에서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측면은 각각 Deutsch와 Gerard(1955)의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의 구분법, 그리고 Kelley(1952)가 준거집단의 기능분석에서 제안한 규범적 기능과 비교적 기능의 구분법과도 각각 핵심적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Deutsch와 Gerard(1955)의 구분법 가운데 규범적 영향이란 타인의 기대에 동조하도록 하는 영향을 말하고, 정보적 영향이란 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진실로서 받아 들이도록 하는 영향을 말한다. 이 구분법을 적용한다면 선택이행에서의 사회비교는 규범적 영향, 그리고 설득주장은 정보적 영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분석에서도 분명해

지듯이 사회비교 이론과 설득주장 이론이 집단에서의 영향으로 인해 각각 동조와 태도변화 과정을 가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전제한다면, 각 집단의사결정 상황이 규범이나 동조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각하는 사회적 의미에 따라서 동조 혹은 태도변화가 요구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두 이론이 모두 타당하다는 견해와는 달리, 두 이론이 상대적으로 지지될 수 있는 조건 요인들을 해명해야 한다는 연구과제를 명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조뿐만 아니라 태도변화까지 요구되는 집단의사결정 상황도 있을 수 있다. 비록 필자의 주장처럼 명세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해석은 규범적 영향과 정보적 영향이 선택 이행에서 동시에 작용 함으로써 가산효과를 지닌다는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Stasser, Kerr & Davis, 1980). 그러나 이들의 견해는 어떤 집단의사결정 상황에서든지 두 요인의 가산적 영향이 있으리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가산성이 작용한다고 보는 필자의 견해와 구별된다. 필자는 가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조건의 특징을 개념적으로 명시하거나 분류목록을 포괄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사회비교 정보나 설득주장 어느 하나만으로는 극단이행이 최고수준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선택과제, 규범적 동조이거나 태도변화 가운데 어느 하나거나 둘 모두가 한번의 집단의사결정에서만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극단적 의사결정 효과가 지속되어야 하는 선택효과의 지속조건 등은 가산성이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본다.

사회비교나 설득주장 이론 이외에 극히 최근에 사회정체성이론의 배경에서 제안된 준거정보적영향 이론(Tuner, Wetherell & Hogg, 1989)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이론은 사회적 정체이론에서 보는바와 같이, 집단간 갈등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이론을 집단내 역학 현상인 분극화 현상에 적용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집단분극화란 내집단 규범에 대한 동조 현상인데, 내집단이 자기범주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준거체제를 기준으로 볼때 극단적 방향에 내집단을 위치시키고자하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회비교나 설득주장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 집단 분극화라고 보는데, 연구의 예를 들어서

이 점을 부각시켜보자. 비디오 녹화된 집단토의 과정 및 집단이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으로 태도를 바꾸는 장면을 피험자들에게 관찰토록 했다. 피험자들은 집단토의나 결정내용이 내집단, 외집단, 유사집단 혹은 다른 집단에서 각각 주장되고 결정되었다고 지각토록 했다. 실험결과, 동일한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이나 보수 이행 쪽으로 설득된 정도를 보면, 관찰한 토의집단이 외집단이라고 동일시했을 때보다 내집단이라고 동일시했을때, 그리고 다른 집단에서보다 자기가 속한 집단과 유사한 집단에서 나온 주장일때 더 설득되었다. 또한 자신이 모험적이거나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자기 정체를 동일시 했을때는 변화가 없거나 자기정체와 다른 방향으로 변화된 바와는 달리,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모험적 혹은 보수적이라고 동일시 했을때 각각 모험적이거나 보수적 방향으로 태도가 극화되었다. 이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Turner등은 집단분극화를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이론들인 설득주장 이론이나 사회비교 이론보다 집단의 동일시 준거 기능과 동조 규범을 강조하는 준거 정보적 영향이론의 우수성을 지지하는 결과로 본다. 사회정체성과 관련지워서 이 이론을 간략히 다시 정리하자면, 집단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사회비교와 집단 준거에 동조하려는 규범적 압력은 개인 범주나 주장의 내용보다 집단으로서 범주화됨에 의해서 영향력이 더 커진다. 이 이론에서 기존 연구들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사점을 끌어낼수도 있다. 즉, 사회적 영향에서 대인의존을 강조하는 규범적 및 정보적 영향의 구분법을 집단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범주화의 성결과 관련시킴으로써 구성원들의 자기 범주화 과정을 설명 개념으로 사용하여 일관성있는 해석 체계를 마련할 수도 있다.

집단의사결정에서 집단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논의할 점은 집단이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집단의사결정의 규칙이다. 집단의사결정 규칙설(Davis, 1973)은 최종 결정이 나타나게된 배경을 개인의견들이 수학적으로 조합되는 규칙으로 설명하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 조합의 규칙이 사용되는 사회심리학적 배경에 대한 설명을 직접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론으로서의 약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정답을 찾는 과제가 아닌 경우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대부분의 집단의사결정에서는 최소한 만장

일치나 다수결 규칙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때, 도락때의 결정(Davis et al, 1974), 모의 배심판정(Davis et al, 1975) 등에 사용된 이 이론이 집단극화를 포함하는 여러 유형의 집단의사결정에 적용될 여지가 많다. 예를 들면 최초의 태도가 한 방향으로 기운 선택문항의 경우에는 한 사람 이상의 지지자만 있으면 극단적 태도를 지닌 구성원의 주장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험적 혹은 보수적인 선택문항의 토의에서는 각각 모험이나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지원하면 이기는 규칙이 사용될 수 있다. 이는 극단으로 기운 선택과제에서 타인지원 승리규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반면, 덜 극단적인 선택과제에서는 다수결 규칙이 적용되었다(Laughlin & Eagly, 1982). 또한 만장일치의 결정규칙을 사용할때 묵시적으로나 명시적으로 다수결 규칙이 먼저 적용되고, 그 다음 이 결과에 근거하여 만장일치 규칙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집단 의사결정과제에서 집단의사결정 규칙이 작용한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이 규칙에 관한 연구가 드물기는 하지만, 앞의 이론들과 연결지워서 새로운 조망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집단사고

집단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병리적인 의사결정 현상으로서 집단사고에 관한 연구에 주목할 만하다. 집단사고 현상을 일반화된 명제로 나타낸다면, “정책을 결정하는 내집단 구성원들간에 서로 우애가 깊고 단결심이 강할수록 독자적이고 비판적 사고 대신에 집단사고가 나타날 위험은 더 커지는데, 이 집단사고는 외집단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Janis, 1983, p.13) 라고 요약될 수 있다. 미국 정부 조직에서 이루어진 외교정책의 다섯가지 잘못된 의사결정 사례들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이론이 제안되었다. Janis(1983, p.254) 자신의 지적처럼 집단사고에 취약한 사람들이나 집단사고가 일어나는 때를 알아내는 문제보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초가 더 어려운 문제이다(Janis, 1983, p.255). 의사결정에서 외부의 압력이나 내적 긴장요인에 대처하려는 모든 집단 구성원들의 강력한 동기에 근거를 두고

상호지원을 추구하려는 합의점 추구(concurrence seeking)가 이론적 설명의 핵심 개념이라고 제안된다. 다시말하면 합의점 추구하고 집단사고 증후군은 외부나 내부의 스트레스에 당면해서 이에 대처할 책임을 함께 진 경우에 집단구성원들 사이에 정서적 평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상호노력으로서 일어난다고 이해될 수 있다(Janis, 1982, p.256). 그러나 이 합의점 추구경향이 집단 의사결정에 항상 나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Janis는 좋지 못한 집단사고를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 집단사고의 증후군, 집단사고로 인해서 초래되는 나쁜 질의 의사결정 절차 및 성공적이지 못한 의사결정의 가능한 결과들로 집단사고 유발과정 및 작용요소를 제안하였다(Janis, 1983, p.242-259).

먼저 <1> 선행조건들을 살펴보면, 1) 의사결정자들이 응집력 높은 집단을 구성하는 점 2) 조직의 구조적 결함들 3) 집단사고를 자극하는 상황적 맥락을 들고 있다. 이 세 선행조건들은 <2> 집단사고 경향인 합치점 추구경향을 형성하고 <3> 이 합치점 추구 경향은 집단사고의 증후군을 이루게 되고, <4> 방어적 의사결정 증후군을 형성하여 <5> 그 결과로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확률이 낮아진다고 보았다. 이 요인들 가운데 <1> 선행조건들로서 1) 의사결정자들의 응집력 높은 집단 구성 2) 조직의 구조적 결함 및 3) 집단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적 맥락을 각각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이 제안되었다. 또한 <3> 집단사고의 증후군과 <4> 방어적 의사결정의 증후군의 하위 증후군들도 제시되었다. 이를 간략히 소개해보자. 조직의 구조적 결함들에는 ① 다른 집단들과의 단절 ② 편파적이 아닌 리더쉽 전통의 결여, ③ 질서있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 규범의 결여, ④ 구성원들의 사회적 배경과 이념의 동질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집단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적 맥락에는 ① 리더가 제안한 안보다 더 나은 해결책을 얻을 희망은 낮고 외부의 압력으로 스트레스가 높을 때, ②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자존심이 저하된 경우인데, 구성원이 실패때문에 부적격한 점들을 강하게 경험하게 된 경우, 각 구성원의 자기 유능감을 낮출만큼 최근에 당면한 의사결정과제가 지나치게 어려울 경우, 및 윤리적 기준을 침해하는 방도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도덕적 공지에 처한 경우들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집단사고의 증후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는데, 첫째 유형인 집단에 대한 과대평가에는 ① 집단에 취약성이 없다는 착각과 ② 집단고유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이 포함되며, 둘째 유형인 폐쇄심성에는 ③ 집합적 합리화 ④ 의집단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포함되고, 셋째 유형인 획일성 지향의 압력에는 ⑤ 자기검열 ⑥ 만장일치의 환상 ⑦ 반대자들에 대한 직접적 압력 및 ⑧ 자신이 정한 심적 경계가 포함된다(Janis, 1983, p.174-175). 한편, 방어적 의사결정 증후군에는 ① 대안적 해결책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② 목표들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③ 선호된 선택이 지니는 위험을 검토하지 못함 ④ 처음 배척된 대안들을 재평가해보지 못함 ⑤ 정보탐색의 빈약성 ⑥ 입수한 정보의 처리에서 선택의 편파성 ⑦ 우발사건에 대비한 계획수립의 실패가 포함된다(Janis, 1983, p.244).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같이 집단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9종의 처방도 제안되었다(Janis, 1983, p.262-271). 그 내용은 ① 정책결정 집단의 리더가 구성원 각자에게 비판적 평가자의 역할을 부여할 것 ② 정책 결정 초기에 리더가 자신의 선호와 기대를 제시하지 말고 불편 부당할 것 ③ 한 정책 수립에 여러 독립적인 정책 기획 및 평가집단들을 만들어서 관리할 것 ④ 정책결정 집단을 때때로 둘 이상으로 나누어서 다른 의장 밑에서 운영하고 후에 합치점을 찾아낼 것 ⑤ 정책결정 집단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부서내의 동료들을 통해서 집단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토의할 것 ⑥ 한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나 조직내의 자격있는 동료를 초청하여 반대 의견을 개진시킬 것 ⑦ 정책대안 평가 모임에서 한명 이상의 구성원에게 반대자의 악역을 배정할 것 ⑧ 경쟁국가나 조직과의 관계에서는 이들의 반응을 알기 위하여 시간 간격을 둘 것 ⑨ 예비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구성원들의 의식을 발표하고 재고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더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간략히 정리한 집단사고 이론의 발표 후에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이 비판들 중에서 집단사고의 선행요인으로서 중요시된 집단 구성원간의 응집력의 영향에 대해서만 논의하기로 한다. Janis(1982, p.176, p.245)가 되풀이해서 응집력이 집단사고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선행요인으로서 작용한다고 주장하기는 했지만, 응집력이 결여된 집단들도, 특히 구성원들

이 내전에 참여 중인 경우에는, 의사결정에서 결함을 보이는 증상을 나타낼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체로 정책결정집단 구성원들의 응집력이 중간이거나 높은 경우에만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합적으로 일할때 집단사고 증후군이 나타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집단응집력은 항상 일정하게 집단사고 증후군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즉, 명시적으로 말해서 응집력은 집단사고 증후군을 일으키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Janis, 1982, p.245). 응집력이 단지 집단사고 발생의 단서조건을 제공할 뿐이기 때문에 응집력, 구조적 결함 및 상황적 맥락이라는 세 선행조건들의 영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Janis, 1982, p.245). “집단의 응집력이 중간이거나 높을때, 그 이외의 두 종류의 선행요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집단사고의 결과로서 결함있는 의사결정을 하게될 확률은 더 커진다.”

이와같은 제한적 영향력에 관한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은 구조적 결함이나 상황적 맥락을 일정한 수준으로 가정하거나 무시한채 집단사고의 선행요인으로서 응집력만을 다룬 경우가 많다. 집단사고는 강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뿐 모든 의사결정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구성원간의 응집력 혹은 단결력 보다는 집단 문제해결 과정에서 절차상의 결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Steiner(1982, p.519)의 분석에 따르면, 집단응집성은 문제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검토할 수 없게 만든 집단사고의 선행 결정요인이기보다 집단사고와 유사한 과정으로 초래된 결과이다. 즉, 집단사고를 촉진시킨 요인은 높은 응집력 자체이기보다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강한 응집력을 지니려는 바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집단사고의 핵심요소는 집단응집력의 형성 혹은 유지를 위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간섭하는 행동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데 있다. 대체로 응집력이 중요한 상황이란 신념의 타당성을 확립할 배경이 없거나, 신념이 사회의 규범과 상반되거나 동료들이 외부로부터의 공격대상이 되는 경우 등이다. Janis가 사용한 정책 결정 사례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응집력의 증가 요구가 강한 조건들이 많이 나타나 있다. 높은 응집력 유지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이 간섭받는 점 이외에, Steiner가 집단사고 발생의 부가적 원인으로 제시한 요소는 집단의사결정 이전의 공

개적 개입인데, 이는 동조를 제한하게 된다. 만약 구성원들이 이전에 서로 다른 견해에 개입했다면 집단사고는 억제될 수 있다. 다른 한가지 부가요인은 자기이해인데, 집단에서 결정될 내용과 이전 개입이 일치되고 또한 자기이해와도 합치되면 집단사고의 가능성은 더 클 수 있다.

한편, 집단사고의 선행조건들이 집단합의점을 개인적으로 수용하는 내면화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찬성 없이 공적으로만 순종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집단응집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공적 순종이 반드시 저하되지는 않는다는 견해에 근거를 둔다. 이 관점과 일관되게, 미숙한 합의점 추구 현상인 집단사고의 선행요인들 가운데 구조적 요인들인 편파적 지도력 및 다른 집단과의 단절 요인으로는 집단사고 발생여부를 예언할 수 있으나, 응집력 요인이나 위기상황, 외부 위협, 의사결정난도 및 최근 실패 등의 상황적 요인들로서는 집단사고의 발생여부를 예언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McCauley, 1989).

Steiner(1982, p.522)도 지적한바와 같이, Janis가 주장하는 집단사고 발생원인과 과정설은, 옳건 그르건 간에, 정치적 집단에서의 의사결정이라는 실생활 사건을 다루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집단연구는 물론 사회심리학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집단사고를 다룬 Janis 이후의 연구들을 보면, 모든 선행요인들이나 과정을 연결지어서 다룬 실증 연구는 거의 없고 선행요인들의 주효과를 기존집단 자료를 써서 사후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학자, 정치가나 일반인에게 관심을 끈 정도와 비교해볼때 학문적으로 Janis의 가설을 검증한 연구는 놀랄만큼 적다 (Moreland, 1982).

집단간 편견과 차별

이 주제에 관해서는 국내에서의 소개된 정도를 고려하여 Allport(1954), Sherif(1961), Rokeach(1960), Pettigrew(1980)등을 제외하고 사회적 정체이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Tajfel(1978)에 의해서 제안된 사회적 정체이론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이 긍정적 자기정체를 유지하거나 성취하기 위하여 동기화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자기정

체란 사회적 측면의 정체를 말하는데, 이 사회적 정체란 “집단 구성원에게 부여된 가치와 정서적 중요성과 아울러 사회적 집단(혹은 집단들)의 구성원이라는 지식으로부터 파생된 자기개념의 일부”로 정의될 수 있다 (Tajfel, 1978, p63). 간략히 말해서, 사회적 정체란 개인의 주관적 지각으로 볼때 집단의 어떤 구성원임을 나타내며, 또한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가치를 포함하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 중요하다. Tajfel이 비사회적 대상의 지각에 대한 범주화 현상을 다룬 초기연구로부터 사회적 자각에 대한 범주화 현상을 다룬 연구로 주제를 바꾸었을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다. 즉, 동일범주에 속한 자각들에 대해서는 특이성 지각이 우세했다. 그러나 비사회적 자각에 대한 범주화에서와는 달리 사회적 범주화에서는 특기할만한 독특한 두 성질이 첨가되었다.

첫째, 사회적 자각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서로 다른 범주로 범주화할때 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회적 규범과 가치를 준거로 사용하여 판단하게 된다. 둘째로, 자신들이 일정한 집단에 속한다고 선택적으로 범주화하여 동일시하게 되면, 이 범주의 선택 결과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처럼 집단 동일시에 따라서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집단간 차별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집단간 차별을 보이려고 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무엇인가? 현실상황에서는 자기집단과 외집단간의 실질적 이해관계가 집단간 차별의 배경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실적 갈등을 중시하는 사회적 평가이론 (social evaluation theory, Pettigrew, 1967)이 인종간 갈등등의 집단갈등의 이해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간의 현실적 갈등은 중요한 가치 차원에 따라서 범주화가 달리 되는점 이외에도 오랜기간 동안의 집단간 경쟁과 대결이 지속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집단간 갈등이 발생하는 최소조건을 찾아내는데는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닐수 있다. Tajfel과 동료 연구자들은 다양한 추가요인이 제거된 최소집단(minimal group)연구법을 써서 사회적 범주화와 집단간 행동을 연구했다. 즉, 단지 명명적 준거에 따라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사회적으로 범주화했을때 나타나는 집단간 행동 효과를 다루었다. 독립변인으로 자신이 속하거나 타인이 속한

집단을 사소한 준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범주화하도록 만들어서 독립변인이 내집단이나 외집단에 대한 보상할 당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Tajfel과 동료 연구자들은 집단간 편향과 연합된 보통의 조건이 없는 경우에도 사회적 범주화 자체의 결과로서 집단 형성과 차별적 집단간 행동이 발전된다고 결론지었다.

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예, Billig, 1973; Billig & Tajfel, 1973; Doise, Csepeti, Dann, Gouge, Larsen & Ostell, 1972; Tajfel, 1974; Turner, 1975)에서도 어떤 조건하에서는 사회적 범주화 자체만으로도 집단간 차별의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Turner(1981, p.77)는 심리적 과정들로 볼 때 “차별적 사회관계를 조성하는 경향을 지니는 내집단-외집단 구분 속에 원래 내재해 있거나 단지 실험적으로 조성된 사회범주화 및 사회비교 과정”을 강조한다. 이를 포함시켜 본다면 사회적 정체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들은 앞서 언급한 사회정체성의 욕구 그리고 사회적 범주화 및 사회비교과정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초기에 최소집단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사회범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구성원 개인의 이해와 집단 이해의 상대적 중요성이 깊이 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와 아울러 사회범주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나 중요한 의미를 지닐때 집단간 갈등이 나타나는지 알 수 없었다.

집단간 차별 연구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범주로 사용된 기준들로는 점의 추정과제(Tajfel, 1970), 심미적 선호(Turner, 1975)가 흔히 사용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자들은 이 기준들이 중요하지 않으며(Tajfel, 1978d, p.439), 사소하다거나(Tajfel, 1978c, p.77),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Turner, 1981, p.75). 그러나 이 기준들이 과연 의미상 중요하지 않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부분의 문명화된 문화권에서는 점의 추정이나 심미적 선호가 단순하고 무의미한 집단구분의 기준이기보다 각 범주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지니고 있는 가치의 차이를 반영한다. 이렇게 본다면 최소집단의 범주화 기준이 표면적으로는 사소하지만 의미에 있어서는 중요한 준거로서 작용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다(Moghad-

am & Stringer, 1986).

그렇다면 사회적 정체이론에서 사회적 자극에 대한 범주화가 이루어지면 내집단을 선호하고 외집단을 적대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타나는가? 범주적 차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목적은 인간이 처한 세상을 이해하려는 인지적 욕구와 관련된다. Bruner(1957)의 주장과 일치되게 Tajfel이 설명한 바에 의하면 사회적 범주화에 의한 범주적 차별화는 모든 사물이나 인간에게 각각 달리 반응할 필요가 없게 함으로써 인간이 처해있는 복잡하고 혼돈된 세상을 질서지워주고 단순화하는 기능을 제공케 된다. 이처럼 유사성과 차이에 근거해서 범주화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범주적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는가? 범주적 차별화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 개념으로서의 규범(Tajfel, Flament, Billig & Bundy, 1971)과 범주화 과정(Doise, 1976) 들 수 있다. 초기에 제안된 규범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 어떤 집단의 성원으로 보게되면 팀이나 팀간의 계임을 쉽게 연상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경쟁적 규범이 우세하게 작용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한다. 서구 문화에서는 대체로 팀간의 게임에서는 이기려는 경쟁적 규범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단의 범주화가 내집단 선호를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규범에 의한 설명을 지지한다고 해석되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유럽, 사모아 및 마오리 원주민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에서 사모아와 마오리 아동들이 유럽 아동보다 내집단 선호도가 낮았고, 양측의 성과를 함께 고려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Wetherell, 1982).

이와같은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주화에 의한 차별을 규범에 의해서 설명하려는 주장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는, 특정 상황에 작용하는 규범의 성질이나 수를 사전에 알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사후설명에 그친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규범적 설명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한 문화권이라고 하더라도 내외집단의 지위나 외집단의 성질이 다를 경우 범주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별반응들의 체계적 차이를 예측할 수 없다(Turner, 1981b). 규범에 의한 설명의 대안으로 제안된 범주화과정에 의한 설명에 의하면 서로 다른 범주에 속하는 자극들을 판단케하면 두 범주간의 차

이가 과장되는 형태로 왜곡되어 지각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차별화과정이란 범주간 차이를 첨예하게 만들고 범주내 차이를 모호하게 만들므로써 집단성원과 비집단 성원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쉽게 만든다. 차별화과정에 의한 설명은 규범에 의한 설명과 비교할때 여러 상황에서 차별의 증감이 나타나는 현상을 예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의 예를 들어보자. 인종과 성별의 두 변인에 의해서 각각 두 범주로 나누며, 서로 교차되는 두 변인에 관한 정보가 모두 제공된 네 조건을 만들면, 범주간 차별화와 범주내 동화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의 단일 변인을 두 범주로 나누었을 때 보다 집단간 차별이 감소된다(Deschamps & Doise, 1978).

상황에 따라서는 집단간이나 대인간에 범주화할 수 있는 차원들이 많이 존재 하는 상황도 흔하다. 예를 들면, 범주화가 가능한 출생이나 성장지역, 성별, 직업, 학력, 연령 등의 차원들 가운데서 어떤 차원이 범주화에 이용되는가? 사용할 수 있는 범주들이 많을 때 한 범주의 우세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는 접근가능성과 적합성을 들 수 있다(Bruner, 1957). 여기서 접근가능성이란 범주화하여 지각하는 사람에 관련된 속성으로서 자신의 문화권 및 집단간 활동 상황, 가치, 동기, 과업 및 목표등에 의해서 특정한 범주체계의 가능성이 가려지게 된다. 그리고 적합성이란 환경의 속성으로서 이의 결정요인은 ① 범주화하려는 사람이나 사물들간의 차이점과 집단내 유사성으로 본 공변성, ② 자극들간의 근접성과 공동운명, ③ 다른 사람이나 사물들과 구별되는 특이성 등이다(Brown, 1988, p.236).

사회적 정체이론을 다룬 초기 연구들은 차별적으로 범주화되는 집단들이 지위나 세력관계에서 동등한 조건으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집단간 갈등이 문제로 대두되는 현실사회에서는 범주화된 집단들간에 지위나 세력수준이 동등하지 않거나 집단간 관계가 상하위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예를 들면 근로자 집단들은 사용자 집단보다 세력이 약한 형태로 위계를 이룬다(Brown, 1978). 소수집단의 언어나 지방 사투리가 지배적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에 의해서 나쁘게 평가되는 예도 있다. 이와같은 집단간 신분이나 세력간의 차이가 집단간 행동에 일정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전반적으로 보면 세력이 큰 집단의 성원들은 세력이 작거

나 동등한 집단의 구성원들보다 차별행동이 심했다(Ng, 1982). 세력수준이 서로 다른 집단간의 차별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에 관해서 Brown(1988, p246-253)은 두 집단에 각각 처했을 때의 상황 분석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다. 높은 지위의 구성원들은 사회내 타집단과 비교할때 우월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자존심 유지와 관련된 정체성 문제가 거의 없다. 따라서 자기 집단을 선호하는 차별 현상을 보인다(Van Knippenberg, 1984). 최소집단 연구 기법을 수정하고 창조성이 동등하거나 동등하지 않은 집단들을 만들고 다른 과제에서의 창조성을 평가하도록 한 결과, 동등 지위의 집단들은 분명한 내집단 선호를 보인 반면에 낮은 지위의 집단들은 외집단 선호를 보였다(Sachdev & Bourhis, 1987). 그런데 동등한 지위의 집단에서나 높은 지위의 집단에서 내집단 선호를 나타내는 집단간 차별현상은 표면적으로는 같은 결과이지만, 차별이 가져오는 기능으로 볼때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즉, 높은 지위의 집단들에서는 내집단 선호란 이미 확보한 안정된 지배성의 유지기능을 하지만, 동등 지위의 집단들에서는 어떤 특이성을 달성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일 수 있다(Brown, 1988, p.246).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낮은 지위의 집단에서 나타난 외집단 선호는 자기가 속한 낮은 지위의 집단을 극복하거나 이탈하거나 높은 지위의 구성원이라고 착오된 동일시를 함으로써(misidentification)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실질적으로나 인지적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지위의 집단들에 속한 경우에 사회적 정체란 물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나쁜 자기 개념을 의미한다. 이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은 실질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기 집단을 떠나려는 경향이다. 심리적인 자기 집단 이탈 현상의 예로서는 흑인이면서 백인 아동을 선호하고 동일시 한 경우를 보고한 연구결과(Clark & Clark, 1947), 다수집단과 동일시하는 소수 집단(Vaughan, 1964; Moreland, 1969; Milner, 1975),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비유대인 집단에 가입하려는 경향(Lewin, 1948)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처럼 자기 집단이 아닌 외집단 구성원으로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은 동일시 착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현상은 보편적인 현상도 아니며 낮은 세력 집단이 필연적으로 당도하게 되는 결

과도 아니다(Hraba & Grant, 1970; Vaughan, 1978).

세력이 낮거나 열등한 집단이라면 집단과 동일시한다는 일이 유쾌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상태를 바꾸고 싶어한다. 그러나 집단이 처한 위치를 바꾸고 싶다고해서 반드시 바꾸려고 동기화되지는 않고, 다만 사회적 변화를 통해서 변화시키는데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대안적인 지각이 성립되어야만 동기화되고, 필요한 전략도 강구된다. 이와같은 인지적 대안의 지각이 없다면 집단의 현상황에 대해서 불만족하더라도 변화를 꾀하려하지 않고 집단간 상황을 바꾸려고 행동하지 않는다. 즉, 동기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현상황에 대한 인지적 대안이 지각된 경우에 집단간 변화를 이루려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전략 가운데 하나나 그 이상의 조합을 활용하게 된다. 첫째는, 열등한 집단이 지배적 집단에 흡수되는 전략이다. 둘째는, 열등한 집단이 지녔던 부정적 특징점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재평가하는 전략이다. 셋째, 집단간 비교에서 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차원을 가운데 내집단에 유리한 측면을 만들어 내거나 채택하는 전략이다. 네번째 전략은 열세한 집단이 우세한 지배 세력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전략이다.

앞에서는 열세한 내집단의 사회정체를 집단적으로 변경하는 전략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집단구성원들은 자기위상을 바꾸기 위한 개인적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집단내에서 이에 해당되는 전략의 예로서는 개인적으로 집단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 현상을 나타내는 한 용어로서는 사회적 신분상승(social mobility)의 개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개인탈퇴 방법은 집단탈퇴가 가능한 개방적 집단에서 개방이 허용된 경우에 한정된다(Hirschman, 1970). 집단 탈퇴가 가능하도록 개방되지 못한 경우에는 집단간 전술이 아닌 집단내 전술로서 자신을 자기보다 못한 내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Smith, 1985, p.171).

앞에서 논의한 이론의 문제점과 미해결 과제를 검토해보자. 사회적 정체이론의 연구동향을 전제로 하고, 이론을 평가하는 여러 기준 가운데 많은 연구를 자극한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1970년대 중반이후 이 이론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 이외에 이 이론이 집단연구와 사회심리학 일반에 기여한 공헌점을 언급하기로 한다. 사회적 정체이론은 사회상황에서의 개인반응부터 대안 사회나 집합의 반응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범위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지만, 특히 침체되어 있던 집단간 행동의 연구에 활력을 제공했다. 사회구조의 집합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룬 예로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소수집단 성원들이 더 나은 집단을 지향하여 새로운 지위를 획득하는 활동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집단이나 집합을 다루면서 이론적으로는 1970년대 이후 주도적 위치를 점하는 개인 중심의 사회 인지적 접근법을 제시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이론은 집단간 관계만이 아니라 집단 내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다. 예를 들면 집단 의사결정으로 나타나는 집단분극화 현상이나 조직 행동에도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 정체이론이 지니는 일반적 공헌점을 지적한데 이어서 이 이론 자체나 연구법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이론을 다룬 연구들 가운데 예언이 지지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이론의 타당성에 관해서는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최소집단 상황에서 인위적인 사회적 범주로 사람들을 나누었을때 편향된 판단과 차별행동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이 다양할 수 있다. 이 현상을 지지하는 연구결과(Brewer, 1979 b; Tajfel b, Brewer & Kramer, 1985)는 일치하지만, 이 결과는 차별 혹은 공평성의 측면을 반영하는 점 (Branthwaite et al, 1979; Turner, 1980, 1983; Burnstein et al, 1983), 연구전략에서 나타난 요구특성(demand characteristics)과 외적 타당도(Gerard & Hoyt, 1974; Tajfel, 1978a; Aschenbrenner & Schaefer, 1980; Brown et al, 1980), 자료의 통계처리 방법(Aschenbrenner & Schaefer, 1980; Brown et al, 1980) 등에서 문제점을 지닌다고 지적되었다.

이들 문제점들 가운데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가 집단 간 차별인가 공평성을 나타내는 행동인가의 의문에 대해서는 내집단 선호와 공정성과의 절충을 나타낸다는 견해도 있다(Turner, 1980). 그리고 요구특성 혹은 외적 타당도와 관련된 유용성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실험 연구에 해당되는 비판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

집단을 차별적으로 범주화하는 과정에는 여러 유형의 인지적 편향이 나타남으로써 이에 근거하여 의집단차별 등이 초래되는데, 이러한 비합리적 범주화과정에 관한 이론이나 연구가 미비하다. 세째, 집단간의 세력이나 지위의 차이 혹은 이 차이의 성립 배경에 따라서 집단 간 차별이 달리 나타나는 현상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다. 동등한 세력이나 지위를 지닌 경우와는 달리 세력이 다른 집단간의 차별적 범주화나 그 결과로 나타난 차별 행동에 서로 차이가 있다. 네째, 세력이나 지위 차이의 성립 과정에서 합법성(정당성)이나 구조적 안정성 등의 조건에 따라서 지배적 세력 집단의 내집단 선호도가 달랐다. 즉, 비합법적이고 불안정한 지배집단에서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조건에서보다 지배집단의 내집단 선호가 우세하지 않다. 더 근본적인 과제와 연결 지어 본다면 합법성과 안정성의 지각을 획득하는 상황과 과정이 이론화되어 있지 못하다. 다섯째, 부적절한 사회적 정체를 지닌 집단이 현재 당면한 집단간 상황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지적이거나 행동적 전략들을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못하다. 열등하거나 부적절한 사회적 정체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략들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① 지배적이거나 우세한 집단에 흡수되려는 시도, ② 집단이 지닌 부정적 특징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략 ③ 새로운 차원의 창출과 채택 및 ④ 우세한 집단과의 직접적인 경쟁전략인데 이 전략들이 각각 선별적으로 사용되는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전략의 선택은 예언에 의한 실증적 검증보다 사건 발생 직후의 사후 설명에 한정된다. 여섯째, 실험 및 측정에서 집단 간 선호도의 측정방법(Burnstein, Wittenbraker, Harring & Insko, 1983)이나 통계처리 방법과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Aschenbrenner & Schaefer, 1980; Brown, Tajfel & Turner, 1980). 선호도 측정에서 사용되는 보상 행렬식 유형들이 각각 목표로 하는 측면들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일곱째, 사회적 범주화에 따른 동일시는 강도나 확실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이 점이 이론이나 실증연구에서 고려되지 못했다. 예를 들면, 좋지 못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자기직업으로서 강한 동일시를 보이지 않거나 동일시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Ashfor

th & Mael, 1989). 비록 Tajfel의 견해로 볼때 실제의 정체성보다 주관적으로 지각된 정체성의 중요성이 주장되었으나, 이 둘 간에 일치나 괴리가 일어나는 조건과 이 조건하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도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소수의 영향

Moscovici(1969, 1972)를 중심으로 제안된 집단내 소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볼때 집단연구에서 정당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바와같이 집단이건 사회이건간에 혹은 학문분야와 같은 특수 전문분야에서도 처음에는 소수의견이던 주장이 점차 다수의 견해로 정착되는 점진적 변화나 혁신 현상은 흔히 발견된다. 이때 집단심리학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소수의 견해가, 다수와의 동조압력과 일탈에 대한 부정적 제재를 받으면서도, 전체적으로 소수의견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이다. 이렇게 본다면, Moscovici가 소수의 영향을 다룬에 있어 집단내에서 개인들이 집단의 나머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루어졌은 접근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전체 집단내의 소수집단이 다수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수 및 소수의 영향과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요인들로서 주장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수가 소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수집단 규범에 대한 소수의 동조로 그리고 소수가 다수에게 미치는 영향은 다수쪽의 태도변화로 설명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Brown, 1988). 이처럼 다수와 소수가 각각 상대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른 과정으로 설명한 예로서는 사회심리학에서 소수영향에 대한 연구를 부각시킨 Moscovici(1989, 1985a, 1985b)의 주장에서 볼 수 있다. 그는 다수가 소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소수 집단구성원의 비교과정(comparison process)에 의해서, 그리고 소수가 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은 다수 집단 구성원의 타당화과정(validation process)에 의해서 설명한다. 여기서 비교과정이란 다수의 영향에 의해서 소수집단구성원은 다수와 소수간의 불일치가 의미하는 사회적 함축에 주의를 쏠는다는데 의미가 있다. 정확한 의견을 개진하고 전체 집단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위하

여 소수는 다수의 견해쪽으로 공개적-공식적 의견변화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수는 적극적으로 정보처리과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는 실질적인 영향을 경험하지 않게 되어서 태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수의 견해는 다수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과 불일치되는 견해에 초점을 맞추어 주의를 집중케함으로써 문제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된다. 이 때문에 다수의 견해는 소수의 견해쪽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 태도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탈자로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된 내용을 공개적-외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수의 영향은 다수의 의견 전환을 가져오지만, 다수는 소수에게 행동상의 순종만을 일으키게 된다고 본다. 즉, 다수는 소수에게 순종토록하면서도 의견의 전환을 일으키는 일이 드물고, 소수는 다수에게 순종을 일으키지 못하면서도 의견의 전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일반화된 명제와 상치되는 연구의 예도 많지만(예, Doms & Van Avermaet, 1980; Mugny, 1984a; Personnaz, 1981; Sorrentino, King & Leo, 1980; Wolf, 1985),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다수는 표출적이거나 공개적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고, 소수는 태도와 관련된 인지적 갈등과 재구성과정을 거쳐서 잠재적이거나 사적 수준에서 주로 영향을 미침을 알아냈다(Levine & Russo, 1987; Nemeth & Wachtler, 1983; Maass & Clark, 1983).

Moscovici는 이처럼 다수와 소수의 영향이 질적으로 각각 다른 요소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주장하지만, 질적 차이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많다(Latane & Wolf, 1981; Wolf & Latane, 1983, 1985; Tanford & Penrod, 1984). 이들은 다수와 소수의 영향을 모두 단일과정에 의해서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두 조건에서 질적으로 다른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같은 내용의 영향이 양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Latane는 사회적 충격모형에 의해서 다른 구성원의 수, 타인의 중요도나 세력수준을 나타내는 강도, 타인과 소수와의 근접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타 구성원의 수(N), 이들의 중요도와 세력정도(S), 및 인접성(I)이 사회적 충격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힘: social force)은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

다(Latane, 1981). $SF: I=f(S/N)$.

이 모형의 예언대로 Mullen(1983)은 meta analysis를 통해서 다수나 소수의 수가 증가될수록 각각 소수나 다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을 보고했다. 그리고 Tanford와 Penrod(1984)는 20개 이상의 실험에 근거한 meta analysis를 통해서 소수의 수가 증가할수록 다수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되지만, 선형관계로 증가되지 않고 부정가속추세를 나타냄을 알아냈다. 그의 모형은 사회적 영향의 예언에 유용할 수는 있으나 이 영향이 이루어지는 심리적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과 다수가 공개적 영향을 미치고 소수가 사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차별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두 요인설을 배척하지 못한다. 다른 하나의 단일과정설은 Wolf(1979)에 의해서 제안되었는데, 다수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영향은 의존성에 의해서 매개된다고 주장한다. 다수는 숫적 우세성이 있으므로 소수로 하여금 규범적이며 정보적 의존성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흔하다.

다수와 소수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집단 구성원의 갈등과도 관련된다(Levine & Moreland, 1990). 우선, 집단의사결정 연구와 달리, 집단구성원들이 보통 구성원들의 유대를 이어주는 합의된 의사결정에 도달하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이 방면의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의존성이나 불확실성의 제거보다는 구성원간의 갈등과 행동양식을 주로 다루는데, 이 점은 사회적 혁신을 주관사자로 다룬 Moscovici(1985)의 영향을 반영한다.

Asch(1956)의 접근법에서는 다수가 소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는데 이와 상반되게 Moscovici(1976)등에 의해서 수행된 연구는 소수의 영향을 다룬 점에서 집단내 다수-소수의 양방향적 영향 과정에 착안케한 점에서 공헌했다.

소수-다수 연구와 관련된 특징적 문제점 가운데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집단규모와 영향력 수준간에 단순 선형관계를 이룬다고 가정한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Moscovici에 있어서도 동조에의 영향이라는 면에서 소수의 영향력이 다수보다 작은 이유가 집단규모에 있는 것처럼 가정한다. 따라서 소수영향력은 다수쪽의 태도변화 유발을 통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본질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다수가 큰 세력을 지니고 소수는 작은 세력을 지닌다는 통칙은 잘못된 가정이다. 어떤 사회나 집단에서는 소수가 큰 세력 혹은 큰 자원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흔하다. 따라서 세력이 큰 다수와 세력 이 작은 소수의견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규모와 세력과의 관계를 각각 양분하더라도 네 조건 가운데 두 조건에 불과하여 극히 일부 상황만을 다룬 결과가 된다.

둘째, 연구나 이론에 사용된 맥락을 볼때 의견 혹은 주장이 대부분 소수는 정당한 의견 혹은 진실의 주장, 그리고 다수는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의심스러운 조건을 주로 다룸으로써 이 역시 여러 가능한 조합의 일부분을 다루었다. 셋째, 소수와 다수영향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단일 과정설과 두 과정설의 대립적 논쟁이 연구성과의 기대라는 면에서 의미가 없다고 비판하는, 두 과정 이상의 중다인지과정설도 제안되었다(Chaiken & Stangor, 1987).

네째, 단일과정과 두 과정설의 타당성을 비교검증하기 위하여 여러 준거들을 사용한 연구도 있는데(Kruglanski & Makie, 1989), 이 준거들을 발전시키는 일도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연구들의 검토를 통해서 여러 타당성 검증 준거를 적용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두 과정설을 다소 수정한 이론이 지지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Moscovici와 그의 추종자들이 최근까지 소수영향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 주류에서 벗어나서 다수나 소수의 영향에 관련되는 다른 변인들을 다룬 연구들도 있다. 다수영향에 있어서는 다수의 규모, 다수가 지닌 입장의 극단성, 다수의 유능성 지각, 다수의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접촉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소수영향에서는 자주 연구된대로 소수입장의 극단성과 행동의 일관성, 다수입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 수준, 다수의 독특한 신임 및 다수와 소수의 사회적 범주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Levine & Moreland, 1990).

일반적 결론 : 집단 연구의 전망과 일반적 과제

극히 한정된 주제를 논의한 앞부분에서와는 달리 이

결론 부분에서는 집단연구의 장래전망을 토대로 일반적 과제 몇가지에 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집단행동에 관한 여러 학문 분야에서의 연구업적이나 다양한 주제별 연구결과들을 통합할 수 있는 틀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시도의 하나로서 주된 연구영역을 사회적 영향,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 과정 및 집단의 과제 수행으로 나누려는 분류법이 제안되기도 했다. 이와 아울러 집단의 유형별 분류 체계나 과제의 유형별 분류체계가 제안되기도 했다. 과제의 유형별 분류체계를 제안하여 집단에 관한 연구 업적들을 체계화한 시도로는 McGrath(1984)를 들 수 있다. 그는 원모양의 2차원 평면에 8개로 분할되어 배열되는 과제 유형 분류법을 제안했다. 즉, 차례대로 기획과제, 창조적 과제, 정답 찾는 지적 과제, 선호 의사결정과제, 관점 차이를 해결하려는 인지적 갈등과제, 협동-경쟁과제, 세력갈등의 경선 및 경쟁과제 그리고 심리운동수행과제로 나누었다. 그가 비록 이 과제 분류체계에 의해서 연구 업적들을 체계화 하고자 하였으나 성과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 그러나 과제의 차이를 무시한채 집단 수행을 다루는 접근법을 지양하여 과제와 집단 수행의 상호작용 관계를 다룰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업적들을 통합하고자 시도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집단 연구의 초점을 배타적으로 집단내 개인과정이거나 집단간 과정 가운데 어느 한쪽에만 두는 관점이 바뀌어야 한다. 집단연구의 사적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인지적 접근의 영향력으로 집단내에서의 개인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이 현재까지도 우세하지만, 집단간 차별에 관한 연구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근본적 문제는 인지적 접근 이라는데 있지 않고, 집단간 과정이나 사회과정을 설명하는데 이론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는 인지적 이론이 제안되었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집단내 과정이 집단간 역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이 명시적으로 제시된 바도 있다(Brown, 1988, 서론, X). 이 주장은 70년대이후 유럽 사회심리학에서 이루어진 집단연구에서 집단간 관계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 (Turner & Giles, 1981; Worchel & Austin, 1985)에 근거를 둔다. 이러한 근거에서 본다면 집단내 역학 혹은 개인과정이거나 집단간 관계의 영향에 관한 연구 모두가 촉진되어야

겠지만, 두 영역의 연구를 통합하는 접근법이 시도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 집단내 역학에 집단간 과정이론이 적용 되는 예는 집단 분극화 현상 등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대인과정부터 집단과정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집단 인지이론의 다른 예는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집단 심리를 설명하는 상호교섭 기억 구조이론(Wegner, 1987)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한 사람의 기억 구조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상이 기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어서 친밀하거나 협력적 대인관계에서는 개인 기억 구조보다 집합적 기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째, 사회심리학 전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행동 연구분야에서도 집단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현상은 사회에 미친 충격과 깊이 인상지워진 부정적 집단 사건들 때문에 초래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집단의 본질적 기능을 선(예: Anderson, 1978)과 악(Buys, 1978)으로 대립되게 이해하는 관점 가운데 후자의 관점이 우세한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듯하다. 집단의 순기능 과정과 역기능 과정에 관련되는 변인들이나 작용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한 두 과정의 균형있는 연구를 통해서 집단행동의 이해에 상호보완적이며 촉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집단의 순기능에 관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네째, 최근에는 집단행동 연구에서 실험적 방법 이외에 관찰법, 상관연구, 참여관찰법, 문서기록자료 분석 및 질문지 조사 등 다양한 자료수집과 분석기법이 사용 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국내에서도 연구 방법의 선택 기준에서의 경직성이 극복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 주제별로 선호되거나 사용 가능한 방법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한 두가지 방법만을 고집하는 태도로서는 이론이나 연구 결과의 타당화라는 면이나 집단연구의 활성화라는 면에서 모두 유해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끝으로, 국내에서 중요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들이 집단과 관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심리학 분야의 주도로 집단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앞부분에서 사회의 혼란과 집단 연구간에 정적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살펴본 바가 있다. 이 가정에 근거를 두고 1970년대에 미국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집단 연구가 활성화 되리라고 기대했다가

이 예언이 빗나가자, Steiner(1986, p.544-545)는 단서 조항을 첨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된 주장을 제시했다. “사회적 소요의 원인들이 전반적으로 볼때 사회에 있다고 생각되지도 않으며(혹은 않거나) 대체로 이 상태를 바꿀 수도 없다고 믿지만 않는다면, 사회적 소요 현상이 사회심리학자들로 하여금 개인 대신에 집단 연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현재의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한 무엇보다도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잘못된 관점이나 이 사회 상황을 바꿀 수 없다고 보는 무기력 혹은 패배감의 극복이 진요하다.

참고문헌

- 한덕웅과 성한기(1985) 선택이행에 관한 2요인설의 검증. *행동과학연구*(고려대학교), 제7권, 173-185.
- Adams, J.B., Adams, J., Rice, R.W., & Inston, D. (1985) Effects of perceived group effectiveness and group role on attributions of group performance.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387-398.
- Allport, G.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London: Addison-Wesley.
- Altman, I. (1989) The reemergence of small group research. *Contemporary Psychology*, 34(3), 253-254.
- Asch, S.E. (1956) Studies of independence and conformity: A minority of one against a unanimous majority. *Psychological Monographs*, 70, No.9, 416.
- Aschenbrenner, K.M. & Schaefer, R.E. (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comments on a mathematical model and on the research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89-398.
- Ashforth & Mael, F.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 Bales, R.F., & Strodtbeck, F.L. (1951) Phases in group problem solving.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46, 485-495.
- Baron, R.S. (1986) Distraction-conflict theory : progress and problem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1-40.
- Baron, R.S., Moore, D.L. & Sanders, G.S. (1978) Distraction as a source of drive in social facilitation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16-824.
- Baron, R.S., & Roper, G. (1976) Reaffirmation of social comparison views of choice shifts : Averaging and extremity effects in a autokinetic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521-530.
- Billig, M. (1973) 'Normative communication in minimal intergroup situ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339-343.
- Billig, M.G. & Tajfel, H. (1973) Social categorization and similarity in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 27-52.
- Bion, W.R. (1961) *Experiences in groups : And other papers*. New York : Basic Books.
- Bond, C.F. (1982) 'Social facilitation : a self-presentational 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42-1050.
- Brandstatter, H., Davis, J.H. & Stocker-Kreichgauer, G. (1982) *Contemporary problems in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Branthwaite, A., Doyle, S. & Lightbown, N. (1979) The balance between fairness and discrimin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149-163.
- Brewer, M.B. (1979) In-group bias in the minimal intergroup situation : A cognitive-motivational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86, 307-324.
- Brewer, M.B. & Kramer, R.M. (1985) The psychology of intergroup attitudes and behavior.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6, 219-243.
- Brickner, M.A., Harkins, S.G., Ostrom, T.M. (1986) Effects of personal involvement : Thought provoking implications for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763-769.
- Brown, R.J. (1978) 'Divided we fall : an analysis of relations between a factory workforce',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 Academic Press.
- Brown, R.W. (1985) *Social psychology*, 2nd ed. N. Y. : Free Press.
- Brown, R.J. (1988) *Group processes : Dynamics within and between groups*, ch. 4. Basil Blackwell.
- Brown, R.J., Tajfel, H. & Turner, J.C. (1980) Minimal group situations and intergroup discrimination : comments on the paper by Aschbrenner and Schaefe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399-414.
- Brown, R.J. & Wode, G.S. (1987) Superordinate goals and intergroup behavior : the effects of role ambiguity and status on intergroup attitudes and task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135-142.
- Bruner, J.S. (1950) Social psychology and group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 119-150.
- Burnstein, E. & Vinokur, A. (1977) Persuasive argum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as determinants of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15-332.
- Burnstein, E. (1982) Persuasion as argument processing. In H. Brandstatter, J.H. Davis & G. Stocker-Kreichgaur (Eds.) *Group decision making*, London : Academic Press.
- Burnstein, G., Crum, L., Wittenbraker, J., Harring, K. & Insko, C.a. (1983) On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 Psychology*, 13, 321-350.
- Buy's, C.J. (1978) Humans would do better without grou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 123-125.
- Caple, R.B. (1978) The sequential stages of group development. *Small Group Behavior*, 9, 470-476.
- Carver, C.S. & Scheier, M.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Verlag.
- Chaiken, S. & Stangor, C. (1987)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38, 575-630.
- Clark, H.H. & Clark, E.V. (1977) *Psychology and language: An introduction to psycholinguistics*.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Cotton, J.L. & Baron, R.S. (1980) Anonymity, persuasive arguments and choice shift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3, 391-404.
- Cottrell, N.B. Wack, D.C., Sekerak., G.J. & Rittle, R.H. (1968) 'Social facilitation of dominant responses by the presence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45-250.
- Crutchfield, R.S. (1954) Social psychology and group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 137-172.
- Davis, J.H. (1969) *Group performance*. Reading, MA: Addison-Wesley.
- Davis, J.H. & Stocher-Kreichgauer, G. (eds.) *Contemporary problems in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 Academic Press.
- Deschamps, J.C. & Doise, W. (1978) 'Crossed category memberships in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London: Academic Press.
- Deutsch, M., & Gerard, H.B. (1955) A study of normative and informational social influences upon individual judgment.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1, 629-636.
- Diehl, M. & Stroebe, W. (1987) Productivity loss in brainstorming groups: Toward the solution of a riddl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3, 497-509.
- Doise, W., Csepele, G., Dann, H.D., Gouge, C., Larsen, K. & Ostell, A. (1972)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to the formation of intergroup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202-204.
- Doise, W. & Dann, H.D. (1976) 'New theoretical perspectives in the experimental study of intergroup relations'. *Italian Journal of Psychology*, 3, 285-303.
- Doms, M. & Van Avermaet, E. (1980) Majority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and conversion behavior: a replic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83-292.
- Dunnette, M.D., Campbell, J. & Jaastad, K. (1963) The effect of group participation on brainstorming effectiveness for two industrial sample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46, 30-37.
- Easterbrook, J.A. (1959) The effect of emotion on cue ut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66, 187-201.
- Ebbesen, E.B., & Bowers, R.J. (1974) Proportion of risky to conservative arguments in a group discussion and choice shif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16-327.
- Festinger, L.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isher, B.A. (1970) Decision emergence: Phases in group decision making. *Speech Monographs*, 37, 53-66.
- Fraser, C., Gouge, C. and Billig, M. (1971) Risky shifts, cautious shifts, and group polariz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7-30.
- Geen, R.G. & Gange, J.J. (1977) 'Drive theory of

- social facilitation : twelve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1267-1288.
- Geen, R.G. (1978) Effects of attack and uncontrollable noise on aggression.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2, 15-29.
- Geen, G. (1989) Alternative conceptions of social facilitation. In P.B. Paulus (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1989, 15-51.
- Geen, R.G., Beatty, W.W., & Arkin, R.M. (1984) *Human motivation : psychological behavioral and social approaches*. Boston : Aliyn & Bacon.
- Goethals, G.R., & Zanna, M.P. (1979) The role of social comparison in choice shif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69-1476.
- Goodman, P.S., Ravlin, E. & Schminke, M. (1987) *Understanding groups in organization in Cummings & Staw*, Vol.9, 121-173.
- Gladstein, D.L. (1984) Groups in context : A model of task group effectiveness. *Administrative Sciences Quarterly*, 29, 499-517.
- Green, S.G. & Mitchell, T.R. (1979) Attributional processes of leaders in leader member interac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23, 429-458.
- Griffin, R.W. (1987) Toward an intergrated theory of task design. In Goodman, P.S., Ravlin, E. & Schminke, M. (1987) *Understanding groups in organization in Cummings & Staw*, 79-120.
- Groff, B.D., Baron, R.S. & Moore, D.L. (1983) Distraction, attentional conflict and drivelin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359-380.
- Guerin, B. & Innes, J.M. (1982) 'Social facilitation and social monitoring : a new look at Zajonc's mere presence hypothesi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7-18.
- Guzzo, R.A., Jette, R.D., & Katzell, R.A. (1985) The effects of psychologically based intervention programs on worker productivity : A meta-analysis. *Personnal Psychology*, 38, 275-291.
- Hackman, J.R. & Morris, C.G. (1978) Group process and group effectiveness : A reappraisal. In L. Berkowitz (Eds.), *Group Processes*. New York : Academic Press.
- Hackman, J.R. (1987) The design of work teams. In J. Lorsch (ed.), *Handbook of organizational behavior*, 315-342.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Hare, A.P. (1976) *Handbook of small group research (2nd ed.)*. New York : The Free Press of Glencoe.
- Harkins, S.G. & Jackson, J.M. (1985) The role of evaluation in elimination social loafing.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1(4), 457-465.
- Harkins, S.G. & Petty, R.E. (1982) Effect of task difficulty and task uniqueness on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1214-1229.
- Harkins, S.G. & Szymanski, K. (1987) Social loafing and self-evaluation with a social standar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5, 891-897.
- Henchy, T. & Glass, D.C. (1968) 'Evaluation apprehension and the social facilitation of dominant subordinat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446-454.
- Hill, W.F., & Gruner, L. A study of development in open and closed groups. *Small Group Behavior*, 4, 355-381.
- Hirschman, A.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Ha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Hraba, J. & Grant, G. (1970) Black is beautiful : a re-examination of racial preference and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6, 398-402.
- Ingham, A.G., Levinger, G. Graves, J. & Peck-

- ham, V. (1974) The Ringelmann effect: Studies of group size and performan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371-384.
- Jaspers, J.M.F. (1986) 'Forum and focus: a personal view of European social psych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6, 3-15.
- Janis, I. (1972) *Victims of groupthink*. Boston, MA: Houghton Mifflin.
- Janis, I. (1982) *Groupthink*.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Kelley, H.H. (1952) 'Two functions of reference groups,' In G.E. Swanson, T.M. Newcomb, and E.L. Hartley (eds) *Readings in social psychology*, 2n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Katz, D. (1951) Social psychology and group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 137-172.
- Kerr, N.L. & Bruun, S.E. (1981) Ringelmann revisited: Alternative explorations for social loafing effec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224-231.
- Kruglanski, A. & Mackie, D.M. (1989)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A judgmental process analysis. In W., Stroebe & M. Hewstone, (ed) *Advances in European Social Psychology*, London: Wiley.
- La Coursiere, R. (1974) A group method to facilitate learning during stages of psychiatric affili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roup psychotherapy*, 24, 342-351.
- Latane, B. (1981) The psychology of social the impact. *American Psychologist*, 36, 343-356.
- Latane, B., Williams, K. & Harkins, S. (1979)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822-832.
- Latane, B. & Wolf, S. (1981) The social impact of majorities and minorities. *Psychological Review*, 88, 438-453.
- Leary, M.R. & Forsyth, D.R. (1987)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collective endeavors. In Hendrick (ed.) *Group Processes*. 1987, 8, 167-188.
- Leventhal, G.S. (1979) Effects of external conflict on resource allocation and fairness within groups and organization. In W.G., Austin & S.,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
- Levine, J.M. & Russo, E.M. (1987)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In C. Hendrick (ed.), *Group processes*,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Levine, J.M., & Moreland, R.C. (1990) Progress in small group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1, 585-634.
- Lewicki, P. (1982) Social psychology as viewed by its practitioners survey of society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member's opin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8(3), 409-416.
- Lewin, K. (1948) *Resolving social conflicts*. New York: Harper.
- Locke, E.A. & Latham, G.P. (1990) *A theory of goal setting & task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Maass, A. & Clark, R.D. (1983) Internalization versus compliance: differential processes underlying minority influence and conformity.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197-215.
- Mabry, E.A. (1975) Sequential structure of interaction in encounter groups.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 302-307.
- Mackie, D.M. & Goethals, G.R. (1987) Individual and groups goals. In Hendrick (ed.) *Group processes*, 1987, 8, 144-166.
- Marks, M.L., Mirvis, P.H., Hackman, E.J., &

- Grady, J.F. (1986) Employee participation in a quality circle program : Impact on quality of work life, productivity, and absenteeism.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1, 61-69.
- McCauley, C. (1989) The Nature of social influence in groupthink : Compliance and intern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250-260.
- McGrath, J.E. & Altman, I. (1966) *Small group research : A synthesis and critique of the field*. N.Y. : Holt, Rinehart & Winston, Inc.
- McGrath, J.E., Kravitz, D.A. (1982) Group research.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3, 195-230.
- McGrath, J.E. (1984) *Groups : interaction and performance*.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 Miller, J.G. (1989) The group returns. *Contemporary Psychology*, 34(4), 377-381.
- Milner, D. (1975) *Children and race*. Harmondsworth : Penguin.
- Moghaddam, F.M. & Stringer, P. (1986) "Trivial" and "important" criteria for social categorization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6, 345-354.
- Moreland, J.K. (1969) Race awareness among American and Hong Kong Chinese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5, 360-374.
- Moreland, R.L., & Levine, J.M. (1982) Socialization in small groups : Temporal changes in individual-group relation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5, 137-192.
- Moscovici, S. (1972) Society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J. Israel & H. Tajfel (eds.)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European Monographs in Social Psychology*, Vol. 2. London : Academic Press.
- Moscovici, S. (1985) Social influence and conformity. In G. Lindzey & E. Aronson,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1985, 347-412.
- Moscovici, S., & Faucheux, C. (1972) Social influence, conformity bias and the study of active minoritie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6, New York : Academic Press.
- Moscovici, S. & Lage, E. (1976) Studies in social influence : III. Majority versus minority influence in a group.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6, 149-174.
- Moscovici, S., Lage, E. & Naffrechoux, M. (1969) Influence of a consistent minority on the responses of a majority in a color perception task, *Sociometry*, 32, 365-379.
- Moscovici, S., Mugny, G., & Van Avermaet, E., eds. (1985)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Mugny, G. (1984) Compliance, conversion and the Asch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 14, 353-368.
- Mullen, B. (1987) Introduction : The study of group behavior. In B. Mullen, & Goethals, G. R.
- Mullen, B., & Goethals, G.R. (1987) *Theories of group behavior*. New York : Springer-Verlag.
- Murphy, C & T.M. Newcomb. (1937)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 An interpretation of research upon the socialization of the individual*. New York : Harper.
- Myer, D.G. & Arenson, S.J. (1972) Enhancement of dominant risk tendencies in group discussion. *Psychological Reports*, 30, 615-623.
- Nemeth, C.J., & Wachtler, J. (1983) Creative problem solving as a result of majority vs.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45-55.
- Ng, S.H. (1982) 'Power and social categorization effects on intergroup allocation of rewards',

-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165-172.
- Oldham, G.R. & Hackman, J.R. (1975) The job diagnostics survey : An instrument for the diagnosis of jobs and the evaluation of job redesign projec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 159-170.
- Osborn, A.F. (1957) *Applied imagination*. N. Y. : Scribners.
- Pearson, C.A.L. (1987) Participative goal setting as a strategy for improving performance and job satisfaction : A longitudinal evaluation with railway track maintenance gangs. *Human Relations*, 40, 473-488.
- Personnaz, B. (1981) Study in social influence using the spectrometer method : dynamics of the phenomena of conversion and convertness in perceptual respons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 431-438.
- Pettigrew, T.F. (1967) 'Social evaluation theory', In D. Levine (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 Vol.15, Lincoln, Nebraska :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iecken, H.W. (1960) Soci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1, 479-510.
- Rokeach, M., Smith, P.W. & Evans, R.I (1960) 'Two kinds of prejudice or one?', In M. Rokeach (ed.) *The open and closed mind*. New York : basic Books.
- Sachdev, I. & Bourhis, R.Y. (1987) Status differentials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7, 277-293.
- Salancik, G. & Pfeffer, J. (1978) A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pproach to job attitudes and task design. *Administrative Sciences Quarterly*, 23, 224-252.
- Sandus, G.S. & Baron, R.S. (1977) Is social comparison irrelevant for producing choice shif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03-314.
- Schachter, S. (1951) Deviation, reject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6, 190-207.
- Schoonhoven, C.B. (1981) Problems with contingency theory : Testing assumptions hidden within the language of contingency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s Quarterly*, 26, 349-377.
- Seta, J.J. & Hassan, R.K. (1980) Awareness of prior success and failure : A critical factor i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0-76.
- Shambaugh, P.W. (1978) The development of the small group. *Human Relations*, 31, 283-295.
- Shaw, M. E. (1932) Comparison of individuals and small groups in the rational solution of complex problems.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44, 491-504.
- Sherif, M. (1936) *The psychology of social norms*. New York : Harper.
- Sherief, M., Harvey, O.J., White, B.J., Hood, W.R., & Sherif, C.W. (1961) *Intergroup conflict and cooperation : The robbers cave experiment*. Norman, OK : Institute of Group Relations.
- Singleton, R. Jr. (1973) Group discussion, others decisions, others arguments, and the choice shift phenomen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Cited in Singleton R. Jr. (1979) Another look at the conformity explanation of group induced shifts in choice. *Human Relations*, 32, 37-56.
- Smith, P. (1985) *Language, the sexes and society*. Oxford : Basil Blackwell.
- Sorrentino, R.M., King, G. & Leo, G. (1980) The influence of the minority on perception : a note on a possible alternative explan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 293-301.
- Stasser, G., Kerr, N.L. & Davis, J.H. (1980) Influence processes in decision making

- groups : A modeling approach, In P.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N.J. : Lawrence Erlbaum.
- Steiner, I.D.(1972) *Group process and productivity*. New York : Academic Press.
- Steiner, I.D.(1974) Whatever happened to the group in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94-108.
- Steiner, I.D.(1982) Heuristic models of groupthink. In Brandstatter, H., Davis, J.H. & Stocher-Kreichgauer, G(eds.) *Contemporary problems in group decision making*. New York : Academic Press.
- Stoner, J.A.F.(1961) A comparison of individual and group decisions including risk. *Unpublished thesis*,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chool of Management.
- Steiner, I.D.(1964) Group dynamic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5, 421-226.
- Steiner, .D.(1986) Paradigms and groups.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51-289.
- Tajfel, H.(1970) Experiments in intergroup discrimination. *Scientific American*, 223, 96-102.
- Tajfel, H.(1972) La categorisation sociale. In S., Moscovici(ed.), *Introduction a la psychologie sociologie*, Vol. II. Paris, Larousse.
- Tajfel, H.(1974) Intergroup behavior,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change. *Unpublished Katz-Newcomb lectures*.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Tajfel, H.(1978) *Differentiation between social groups : Studies in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London : Academic Press.
- Tajfel, H., Flament, C., Billig, M.G. & Bundy, R.F.(1971) Social categorization and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 149-177.
- Tanford, S. & Penrod, S.(1984) Social influence model : A formal intergration of research on majority and minority influence processes. *Psychological Bulletin*, 95, 189-225.
- Taylor, D.W., Berry, P.C. & Block, C.H.(1958) Does group participation when using brainstorming facilitate or inhibit creative thinking? *Administrative Sciences Quarterly*, 3, 23-47.
- Triplet, N.(1898) The dynamogenic factors in pace-making and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 507-533.
- Tuckman, B.W.(1965) Developmental sequence in small groups. *Psychological Bulletin*, 63, 384-399.
- Tuckman, B.W., Jensen, M.A.C.(1977) Stages in small group development revisited. *Group and Organizational Studies*, 3, 419-427.
- Turner, J.C.(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 Turner, J.C.(1980) Fairness or discrimination in intergroup behavior? A reply to Branthwaite, Doyle and Lightbown.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0, 131-147.
- Turner, J.C.(1981a) Some considerations in generalizing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In G.M. Stephenson and J.H. Davis(eds.), *Progress in applied social psychology*. Chichester : Wiley.
- Turner, J.C.(1981b) The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behavior. In J.C. Turner and H.Giles(eds.), *Intergroup behavior*. Oxford : Basil Blackwell and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urner, J.C.(1983a) Some comment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in the minimal group paradigm.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51-367.

- Turner, J.C. (1983b) A second reply to Burnstein, Crum, Wittenbraker, Harring, Insko and Thibaut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ori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 383-387.
- Turner, J.C., Hogg, M.A., Oakes, P.J., Reicher, S.D. & Wetherell, M.S. (1987)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A self-categorization theory*. New York: Basil Blackwell.
- Van Knippenberg, A.F.M. & Oers, H. (1984) 'Social identity and equity concerns in intergroup percep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3, 351-362.
- Vaughan, G.M. (1964) 'The transsituational aspect of conformity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32, 335-354.
- Vaughan, G.M. (1978) 'Social change and intergroup preferences in New Zealand'.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8, 297-314.
- Vinokur, A., & Burnstein, E. (1974) The effects of partially shared persuasive arguments of group-induced shifts: A group problem solving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305-315.
- Wallach, M.A., Kogan, N. & Bem, D.J. (1962) Group influence on individual risk taking.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65, 75-86.
- Wegner, D.M. (1987) Transactive memory: A contemporary analysis of the group mind. In Mullen, B. & R. Goethals (1987).
- Weiss, R.F. & Miller, F.G. (1971) The drive theory of social facilitation. *Psychological Review*, 78, 44-57.
- Weldon, E., Gargano, G.M. (1988) Cognitive loafing: The effects of accountability and shared responsibility on cognitive effort.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4, 159-171.
- Wetherell, M. (1982) Cross-cultural studies of minimal groups: Implications for the social identity theory of intergroup relations. In H. Tajfel (ed.), *Social identity and intergroup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therell, M. (1987) Social identity and group polarization. In J.C. Turner (eds.), *Rediscovering the social group*, 1987, 142-170.
- Winter, S.K. (1976) Developmental stages in the roles and concerns of group coleaders. *Small Group Behavior*, 7, 349-362.
- Wolf, S. (1979) Behavioral style and group cohesiveness as sources of minority influence.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9, 381-395.
- Wolf, S. (1983) The manifest and latent influence of majority and minorit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 899-908.
- Wolf, S., & Latane, B. (1985) Conformity, innovation and the Psychosocial law. In S. Moscovici, G. Mugny, & E. Van Avermaet (eds.), *Perspectives on minority influence* (p. 201-21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rche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Zaccaro, S. (1984) Social loafing: The role of task attractivenes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1), 99-106.
- Zajonc, R.B. (1965) Social facilitation. *Science*, 149, 269-274.
- Zander, A. (1979) 'The psychology of group process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0, 417-451.

Trends and Problems in Group Dynamics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In this article, an attempt is made to critically review the studies in small group behavior which have been resurged in '80. Considering the application of small group study to Korea, a brief review is made on methodological issues and historical backgrounds on small group. Then, a variety of issues such as group socialization process, group performance & problem-solving, group productivity in organization, group decision-making, groupthink, intergroup prejudice & discrimination, and minority influence are discussed. Furthermore, it is pointed out that we may need to develop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organizes and systematizes a bulk of studies thus far, and that encompasses the intra-and-intergroup process in an unified model.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t is more beneficial to employ multiple methods instead of a confined number of methods, together with pursuing a balance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group in the area of small group dynamics. Finally, it is suggested that social psychologists in Korea actively contribute to and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mall group approaches to social issues in the future.